

**금주일언** 약을 행하였거든 덮어  
두지 말기를 마치 병기에  
배인 것같이 하라. 끌리어 가서 비로소 알  
았더라도 이미 악행에 몰려져 뒤에 고를스  
런 보응을 받음이 전에 익힌 바와 같으리  
라. <범주경·익행종 211절>

# 東大新聞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1 (2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770-2057)

## 국문과 학생 3천배 참회

총장 "건학이념구현의 새이정표 세워야"



제27대 총학생회 임무보좌자와 제26대 총학생회 운영위원들은 지난 7일 불상 앞에서 국문과학생들과 함께 참회봉회를 올렸다.

지난 31일 있었던 국문과사건에 대해 학내 각종에서 자성과 혁신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문과 학생들은 참회의 의미로 지난 1일부터 정각원, 불상앞에서 백팔배를 하고 있으며, 지난 4일은 국문과 7인을 포함한 과학생들이 8시간에 걸쳐 삼천배를 하는 등 참회봉회를 가지고 있다. 또 제26대 총학생회는 이사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총운위를 열고, 제27대 총학생회 임무보좌자와 함께 불상앞에서 참회봉회를 가졌다. 이 불상에는 총대의원과 작년대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도 함께 하여 "자성집회에 전 동아인이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관해 총장 및 석림회 등 학내 제주체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며 건학이념 구현에 노력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병천(정치외교학) 총장은 지난 3일 총장담화문을 통해 "학교와 전 동국인의 명예가 손상된 점에 대해 학교를 대표하여 고제(敬罪), 종단(宗團), 학부모 그리고 전 동문에 게 심심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면서 "이번 일은 우리 사회전반의 도덕성 결여와 인성교육 부재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건학이념의 진정한 구현과 인성교육의 새 이정표를 세우고 학풍을 쇄신하는데 교수, 직원, 학생 모두 새로운 각오로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석림회(회장=하림스님·선3)는 지난 7일 비상총회를 열고 이번 사건을 학교이념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강력 대치할 것을 결의하고 석림회 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건학이념 구현 및 근원적인 개혁을 위한 참회봉회를 열고있다. 동국대 불교연맹회는 "학생들의 징계와 부총장이하 교무위원들의 사퇴를 건학이념구현을 이념이라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교수, 학생, 직원의 참회를 통한 반성과 실추된 학교의 명예와 위상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및 실천을 학교당국과 전 동국인에게 제안했다.

국문과에서는 이번까지 불상앞에서 지속적인 참회봉회를 열고 '범동국인참회봉회'를 개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각원에서 삼천배를 올린 국문과 학생들은 "삼천배는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인 일곱명의 학우가 진정한 참회의 발심(發心)에서 자성과 정진을 위해 시작하였고 국문과와 모든 학우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로 참여했다"고 밝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 일곱명의 학우들은 바라보며 그들과 같은 과 학우로서 다시 한 번 현각스님과 전 동국인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학생 소환을 요구하는 검찰측에 대해 총장과 현각스님은 지난 4일 "사법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관해 총장 및 석림회 등 학내 제주체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며 건학이념 구현에 노력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병천(정치외교학) 총장은 지난 3일 총장담화문을 통해 "학교와 전 동국인의 명예가 손상된 점에 대해 학교를 대표하여 고제(敬罪), 종단(宗團), 학부모 그리고 전 동문에 게 심심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면서 "이번 일은 우리 사회전반의 도덕성 결여와 인성교육 부재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건학이념의 진정한 구현과 인성교육의 새 이정표를 세우고 학풍을 쇄신하는데 교수, 직원, 학생 모두 새로운 각오로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석림회(회장=하림스님·선3)는 지난 7일 비상총회를 열고 이번 사건을 학교이념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강력 대치할 것을 결의하고 석림회 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건학이념 구현 및 근원적인 개혁을 위한 참회봉회를 열고있다. 동국대 불교연맹회는 "학생들의 징계와 부총장이하 교무위원들의 사퇴를 건학이념구현을 이념이라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교수, 학생, 직원의 참회를 통한 반성과 실추된 학교의 명예와 위상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및 실천을 학교당국과 전 동국인에게 제안했다.

## 노조 비상총회 개최

총장선출 중요성 공유 자리

직원노조(위원장=김윤길·총무과)는 총장선출과 관련하여 오는 10일 오후 4시 중강당에서 노조조합 비상총회 및 전체 직원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윤길 노조위원장은 "총장선출에 관해 노조인장을 교수회등에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선거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전직원이 민주적 총장선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원참여의 당위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상총회에선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직원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통일하고, 교수회뿐 아니라 학내주체들과의 대화를 추진해 이달 말에 있을 예정인 총장선거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된 보고서 내용과 △총장선출 △PC 구매업무에 관해 논의가 되었다. 직원노조는 21세기 교육개혁특별연구위원회에서 발간된 보고서 내용중 직원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왜곡된 시각으로 정리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제안했다. 이에 학교측은 자료가 미진한 부분은 많으나 보고서 내용이 직접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직원과 관련된 인사 및 행정분야의 내용으로 국한하여 노조와 협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논의하여 11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총장선출에 관한 논의에서 노조는 학교의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총장선출은 재단의 권한이므로 학교에서 논의할 성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오는 10일 비상총회와 전체 직원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며, 현재 보직자중 총장출마 의사가 있는 경우 사퇴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논의된 PC구매업무는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절차상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행정중 PC 구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학교측에서 즉시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 정기노사협의회

11월 정기노사협의회가 민병천 총장 및 김윤길노조위원장등 노사 양측 위원 25명과 경주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일 교무위원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21세기 교육개혁특별연구위원회에서 발간

## 1백주년 모금활성화 방안

기부액별 회원 명칭 붙이기로

개교1백주년기념사업본부(본부장=박동기)는 모금활성화방안으로 기부액별로 회원명칭을 붙여 회원명부를 만들어 영구보관하기로 했다. 개교1백주년기념사업 기금 후원회명칭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명칭별 회원명칭은 △동국금장(金章)회원-3억 5천만원 △명진(明進)회원-3천만원 이상 △학림(學林)회원-1천만원 이상 △혜화(惠化)회원-3백만원 이상 △정각(正覺)회원-1백만원 이상 △백산(伯山)회원-1만원씩 24개월 분할 △금강(金剛)회원-1만원씩 12개월분할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지금까지 교내인사에 한정

되어 분할기부받은 것을 교외인사까지 확장하여 정기분할로 기부금을 받는다. 한편, 11월7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총 13억 4천 9백 6천 5천 5백 63원 인 것으로 집계됐다.

## 교수 발전제도연구위 발족

학내 교수들의 비합리적인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일 교수발전제도연구위원회가 발족했다. 각 단과대 교수 및 학부부장 등이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교수업적 평가 및 승진제임용, 강의평가 등을 연구하게 된다.

## 보리수

### 계율제정의 참뜻

불교의 계율은 다른 종교의 그것과 제정 배경이 사뭇 다르다. 예컨대 모세의 십계는 신의 계시에 의한다. 그러나 불교의 계율은 수범수제(隨犯隨製)라 하여 제자들이 허물을 범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여 금계의 규정이 만들어졌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음란한 짓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등 이른바 4바라미죄에 해당하는 계율도 누가 이같은 허물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불교의 계율은 출가 수행자의 것과 재가자의 것으로 대별된다. 이 가운데 출가자의 계율은 엄격하고 세밀하기로 유명하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출가 비구는 무려 2백50가지 비구나니는 5백가지의 계율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세밀한 규정이 생긴 것은 '사분율(四分律)' 머리말의 표현대로 '계율을 제정하면 수행자들이 피로하지 않아 불법이 오래 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다. 즉 어떤 행위에 대해 윤리의 규범을 정해놓음으로써 행위의 기준을 삼아 혼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효스님은 '계율은 깨달음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다'고 말했다. 부처님도 열반에 들면서 '계율을 스승 삼아 공부하라(以戒爲師)'고 가르쳤다. 출가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은 그 내용상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바라미죄(波羅夷

罪)라 하여 승단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중죄다. 여기에 해당하는 계목은 앞에서 예로 든 '살생'등 4가지다. 둘째는 '승진죄(僧殘罪)'라 하여 죄를 범하면 쫓겨나야 하지만, 대중에서 참회하면 겨우 남아 있을 수 있는 죄다. 이는 '근거없이 남이 중한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죄등 13가지다. 셋째는 '바일죄제(波逸提罪)'라는 것으로 자중에 떨어질만한 재물과 실연에 관한 1백20가지 죄다. 그러나 참회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넷째는 '계사니죄(舍舍尼罪)'라는 것으로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닌, 완전한 실수로 범한 것을 말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죄가 없어진다. 다섯째는 '돌길죄제(突吉羅罪)'라는 것으로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나쁜 행위와 나쁜 말 등을 경계한 것이다. 이러한 계목들을 통칭해 '바라미계(波羅夷木叉)'라고 하는데 4바라미죄를 뺀 나머지는 모두 진정으로 참회하면 용서 가능한 항목들이다. 최근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중립대학에서 학생과 교수 사이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행위를 놓고 불교의 계율 조목에 적용하면 어디에 해당될까 참회와 용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종교적인 차원에서 또 교육적 차원에서 숙고해 봐야 하겠다. 洪思誠

## 교무처 강의계획서 보완

내년 3월 배포예정

교무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학과)는 오는 13일부터 실시되는 수강신청 기간에 기존 강의계획서의 형식을 보완하고자 이전과는 달리 강의시간표만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3월 수강신청 기간에 배포 예정인 강의계획서는 기존의 목차형식에서 벗어나 매주 학생들에게 독서과제물과 강의주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언급뿐 아니라 각종 과제물의 제시되는 날과 제출일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교수과의 한 관계자는 "현 강의계획서는 대충작성했다는 인상을 주었다"면서 "주제별 독서과제 및 수업방식이 제시되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예전대로 강의시간표와 강의계획서가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 제32회 학술상 및

# 제9회 동내문학상

## 작품 모집

동대신문사

### 제32회 학술상 작품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일한 수확을 거둬본 분사 학술상이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동국의 화풍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본상 및 가작 (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 사회과학상: 본상 및 가작 (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 자연과학상: 본상 및 가작 (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 ◇응모요령
  - 3개분야 모두 2백자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 ◇응모자격
  -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심사위원
  -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자와 함께 발표
- ◇제출기간
  - 1994년 11월10일~30일까지
- ◇입상작 발표
  - 1995년 1월1일자 본지지상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 (02)260-3491-2

### 제9회 동내문학상 작품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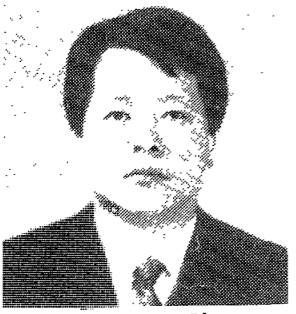
본사에서는 동국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이끌어 나갈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제9회 동내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시 부문: 3편 내외
  - 소설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 평론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 ◇응모자격
  -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
  - 1994년 11월10일~30일까지
- ◇시상
  - 시 부문: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 소설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 평론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 ◇심사위원
  -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자와 함께 발표
- ◇입상작 발표
  - 1995년 1월1일자 본지 지상
  -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바람.

# 동/문/칼/럼

## 안타까운 사태를 보며

### 아픔을 딛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자!



노주혁 (한국산업증권 광화문 부지점장 '농생82출(65경석)')

것인가?  
동학의 상처와 현상을 냉철히 들여다보는 정관(正觀)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실족(失足)의 아픔을 딛고 솔직한 자기반성으로 과거를 치유하는 일만이 또다른 과오를 범하지 않는 첩경일 것이다.  
지금쯤 좌절과 수수방관(袖手傍觀)으로부터 심기일전할 때다. 우리의 동학은 불의의 일격과도 같았던 금번 사태에도 희망적인 변면(變面)을 보여주었다.  
학교당국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 진심으로 누우치는 학우들, 그리고 공평의 수처에 고개 숙여 동학을 사랑하고 불교를 사랑하는 부처님 제자의 한사람으로서 늘 라온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있다.  
이번 일은 당사자인 7명의 학우들이 우선적으로 뼈를 깎는 참회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서 이번 일을 동학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의 잘못으로 생각하여 함께 삼보에 참회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국에 있는 모든 불교 단체와 불제자들이 더욱더 정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동국은 주인없이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다. 표류하는 배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선장과 선원이 떠나 없지 주인이 되어 함께 승기를 모아야 한다. 그러나 동국은 그렇지 못하다. 서로에 대한

#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657 하이텔 (ID:2603491, press11)

## 지난 사건 계기로 더욱더 용맹정진하자

자아완성과 증생제도의 불교이념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동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그러나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지난 31일 불상 앞에서 일어났다. 이번 일에 대하여 동국을 사랑하고 불교를 사랑하는 부처님 제자의 한사람으로서 늘 라온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있다.  
이번 일은 당사자인 7명의 학우들이 우선적으로 뼈를 깎는 참회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서 이번 일을 동학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의 잘못으로 생각하여 함께 삼보에 참회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국에 있는 모든 불교 단체와 불제자들이 더욱더 정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동국은 주인없이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다. 표류하는 배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선장과 선원이 떠나 없지 주인이 되어 함께 승기를 모아야 한다. 그러나 동국은 그렇지 못하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으로 주인 아닌 손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동국의 현실이다. 재단, 학교당국, 교수, 직원, 학생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건학이념이 퇴색되고 있고, 동국의 어느 곳에서든 건학이념의 향기가 나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주인이 되어 동국을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건학이념의 구현과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용맹정진하여야 하며, 학교 당국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동국의 88여년의 성상을 자랑스럽게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동국사람의 마음으로 동국발전을 위하여 용맹정진합시다."

김한일 (사회대 정의와 불교학생회)

정문이나 총무과에서 주차권 또는 주차증을 끊어주고 있다. 여러장의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운전자가 우리학교 재학생으로 처음 뵈었을 때 주차권을 끊어 주며 다음부터 자가용 등교를 삼가해 줄것을 부탁했으나, 이후에도 계속 자가용을 타고 오거나 심지어는 정문에서 학생차량 단속할 때 단속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달아나는 차량에 한해서 하고 있다.  
또한, 차량번호나 차종, 색깔등을 그때마다 적기 때문에 다른 차에게 엉뚱한 피해가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외부인의 차에 불쾌감을 줄수 있고, 아울러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릴지도 모른다는 것은

기우로 보인다.  
그 글에서 문제 제기한대로 진정한 주차권은 스티커 부착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학의 학생들 스스로가 깨어있는 지성으로서 학내의 주차난을 자각하고 자가용 등교를 자제할 때 이 문제의 해답에 한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몇년전 연세대에서 생활문화운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자가용 등교 자제운동'을 벌이면서 내건 표어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서당 등교하는데 가마 탄 학동이 웬 말이뇨?'  
김기영 (문과대 국문과)

### 최초성인만화 불루시걸 한국만화발전 발판되길

요즘 학교 교정안을 걷다 보면 여러가지 영화선전물이 나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에는 띄는게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성인 만화라고 일컫는 불루시걸이다.  
막대한 제작비와 특수 애니메이션을 이용하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성우 더빙을 하고 화려한 나오는 광고는 엄청나다. 하지만 그 영화가 진정한 실속이 있는지는 관객이 판단할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제작하는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의 작업은 우리나라에서 도맡아 하고 있다.  
하향직업이랄까 화려한 실력에서 우리나라의 만화는 어디에도 뒤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만화라는 사회의 그릇된 생각과 돈, 재정적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만화가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여 그 수입력이 대단하다고 한다. 실제로 만화를 이용한 만시제품들 만화는 그 부가가치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만화가 무분별하게 수용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나라 만화의 숨은지력을 끌어내 만화발전을 꾀하는 우리나라 만화의 발전을 통해 일본만화와의 경쟁력을 기르고 일본만화를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다. 지금 현재 상업적이고 있는 불루시걸의 상업적 성공은 아직 모르지만 한국만화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다가를 미래의 멋진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모 지은 (예술대 연영과)

## 신분증 돌려준 줌도둑 성의에 감사해야하나

붓물처럼 터져 나오는 대형사건의 홍수 속에 줌도둑을 거론한다는 것은 한낱한 발상일 수도 있다.  
"지존파도 있는데 그까지 가방털이 풀어야, 0.1초 차이로 한강 속으로 추락해버린 사람도 있는데 돈 몇 만원 도둑맞은 건 장난이지 뭐... 하지만 단교이래 최초의 사건들이 분개하면서 잠시 짬을 내어 일상을 돌아보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후배가 뛰어들었다.  
"언니! 잠시 자고 있는 사이 지갑이 없어졌어"  
우린 흥분하며 신분증만이라도 확보하려고 달려드는 간곡한 메모를 열람실 입구에 붙였다.  
한시간쯤 지났을까 후배가 신분증만 남아 있는 빈지갑을 확보실에서 들고 왔다.  
자고 있는 학우의 지갑을 슬쩍하는 누군가와 같이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이 끼쳤다. 그나마 신분증이라도 돌려주는 성의(?)에 감사해야 하나!  
밤에 자취방에 돌아와 문을 열어 놓고 몇분동안 열방에 갔다가 사이가방이 뜰때 없어졌다면 누가 믿

졌는가. 귀신에 홀린듯한 기분, 인천 북구청 주민들이 세무비리를 알았을 때처럼 허탈하였다. 학생의 목숨과도 같은 가방을 훔쳐 간다는 건 생활자제를 판단시키는 행위이다.  
도서관 열람실 앞에는 지갑을 찾아달라는 하소연이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고, 돈을 잃어버렸다는 친구의 예전 기린 생소하지가 않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러던데, 빔앗은 너네네 좀처럼 살았는지 모르겠다.  
세찬 겨울을 이기기 위해 녀름을 날리우는 나무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추악한 것들을 다 뿌려버리고 그 자리에 새 봄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김미화 (인문대 국문과)

자유발판에는 지원계승 한주 쉬게된 점 양해 바랍니다.

## 주차위반 스티커부착 단속무시 차량에만 붙여

동대신문 11월 2일자 '불법주차 스티커 홍수-외부인에게 불쾌감 줄수도라는 제목의 글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것 같아 실제로 학교안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해명을 하고 싶다.  
학교안에서의 주차단속은 근본적으로 학내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다지 대과 교정으로 넓다고 할수없는 학교에 자동차는 셀 수 없이 들어온다.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세워져있는 자동차때문에 정작 학생들이나 교수·교직원들이 할 수 있는 공간마저 조급씩 없어지고 있다.

학문과 지성의 전당이 아니라 흡사 주차장을 연상케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나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면 업무차량이나 외부손님이 방문차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은 무어라고 할수 없다. 그러나 노교수들도 걸어다니는 판에 젊은 학생들이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 자가용을 타고 와서 주차난을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학내 주차단속은 이런 양적증 학생들의 자가용 등교를 줄이기 위해 하는 것이다. 외부손님이나, 또 학생이라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김미화 (인문대 국문과)

###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 각 면에 어울리는 기사배치를

지나호 동대신문(1160호)에서 가장 관심을 끈것은 7면(경주보도면)이었다. 1면의 Top기사 못지않은 비중있는 기사가 3개씩이나 실렸다. '체육관 증축', '부설 유치원 건립', '금강도로 확장' 이모두가 신문의 역할을 잘 나타내어 주었고 기자들의 노력 또한 엿볼 수 있었다.  
반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첫째, 7면의 '교수회 선관위장에 김진철 교수'라는 기사는 경주보도면 성격에는 걸맞지 않은 내용이며, 고정렬립인 '녹아원'을 얹었고 실릴 정도의 기사는 아니었다고 본다.  
둘째, 1158호 경주보도면에 처음

게재한 기획시리즈 '원효관에서 진흥관까지'는 격조로 실었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호(1160호)에 실리지 않았다.  
셋째 1회로 끝나는 기획시리즈는 아닐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8면(문화면)의 '미술학과 졸업작품전'에 관한 기사의 자료사진은 기사내용과의 부적절함을 보여준다.  
이왕이면 자료사진이 기사내용에서 소개하고 있는 작품의 사진이 실렸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김정현 (불문대 불교학과 본사모니터)

### 조대 만화

## 이런 세상

이영일 (경상대 무역학과)

## 목errick

### 축하합니다

- DUCA의 귀염둥이 수영이의 생일을 모두 축하해주세요. -지연&재순
- 삼, 너의 11평 생일을 무지마하게 축하한다. -海孝
- 금주야! 생일 축하해. 과대 너 무나 잘했어. 수고했다. 금주! 화이팅 -윤승이가
- Youth-Hoste 17기 정성업선배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사세요. -이쁜 15기 일동
- 충현야! 생일 축하해 그리고 머리 때린거 미안하다(다항관에서 어떻게 안될까) 너무! -영석이가
- 김용숙·김향수 신동연장님이 되신걸 축하드립니다. 동연이 95년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관사철학연구회 이쁜이
- 한이의 입방을 축하하며, 우리 하숙집 만세! -민

## 동/악/광/장

### 그리고...

- 파란만장했던 1학년 과대표의 임기가 끝났다. 시원섭섭하다. -史94터프기이
- 주승이의 처량한 모습이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구나. 우리 힘을 내자. 12일은 "노동자대회 전야제" 13일은 "민주노동 총선을 위한 94전국노동자 대회" -E.S
- 중민이 오빠! 서로 이해하면서 잘지냈음에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희가
- 동혁이형의 힘찬모습이 내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합니다. 저희 힘내요. 11일은 "농경인의 밤"이예요. 열심히 삽시다. -K+G

### 알립니다

- 대하고 12일 만나자. -H.M
- 동국대학교 Vocal그룹 백상의 정기발표회 개최. 11월9일 6시 본관 중강당
- 명문 속명예고 94학번 모여봅시다. 11월11일 불상앞에서 12시 얼굴 좀 보자. -L.M.S
- 우신 11시10일 총동문회 꼭 참석. -
- 계산고! 얼굴 좀 봅시다. -연립비림 015-364-3839
- 경모가 군대를 간대요. 군대가서 힘좀 들고올지. 잘갔나 오라고 93학번 친구들이 전해달래요. -동블93

## 은방골

### 축하합니다

- 국·경 환남방의 생일을 뒤통에서나마 축하하며 -고씨아저씨

### 축하합니다

- NIGISHITA의 공연을 축하합니다. -石
- 수고하셨습니다 94년한울회 집행부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우리 10기 집행부 마지막으로 화이팅! -慈心華
- 혜경야. 정말 수고많았다.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구. -너를 무지 사랑하는 친구
- 조경화과 MIPS(컴퓨터 동아리)에서 발표하느라 수고한 심민이와 봉만에게 MIPS와 아무런 관계없이 사람이 박수를 보냅니다. -黑牛
- Newsweek연구회 신입생 여러분! 공개발표회하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도초도
- 사·복과 카타르시스! 우린 해냈다. -육군
- 응용에서 가을 콘서트를 문무관에서 해요. 가을의 멋진 화음을 많이 들으려 하고 주세요! -14기 수진·주현
- 안동향우회가 드디어 부활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11월16일)은 5시30분 A207에 모여주세요!! -
- 남기욱의 군입대를 축하하며... -행정학과 93일동

### 축하합니다

- 전·신인 임경진이 너!내배 우습게보고 약속어기는데 언젠가는 쌍코피 터질거구만! -신안공 선배
- 창현선배님(생화학 91)생일 축하하며 내년에 한번 열심히 해보자구요. -동문회 차기총무
- 마음소리 회원 여러분. 제3회 수화발표회 준비 열심히 해요. -우리
- 국·경 구공(재홍)이 군대에 간다네요. 더 젊어진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기숙사 일동
- 수면부족으로 빨개진 진우형의 눈눈을 누가 어루만져줄까...힘내요. -MrP
- 대우야 우리 군대가터라도 그 우정 잊지말자. -성·병·택
- 재현이형 군대 간다구요? 건강하게 잘 다녀 오시구요. DKBS 많이 생각하시어 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수습원들을 늦게나마 축하해요. -DKBS 137기

### 노동법 개정 전망과 문제점

# 개혁 실체, 노사합의...복수 노조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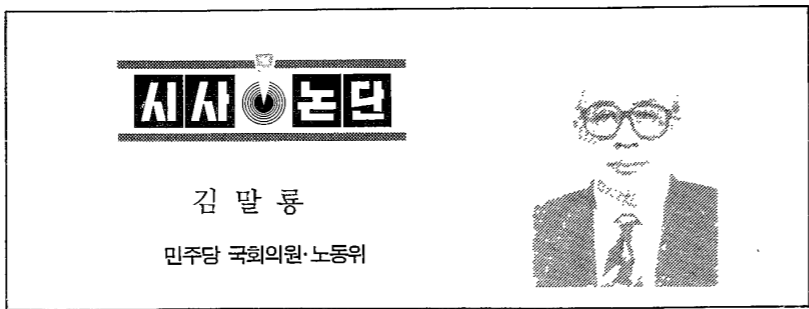
김영삼정부는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동법개정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를 92년4월에 설치하고 2년이 넘도록 아무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어 연구위원회의 활동은 베일에 싸여 있다.

현정부의 노동정책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고용보험제 실시 직업훈련교육 확대 등 복지부문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정책의 확대 그 자체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자율화와 자유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게 될 때 행정부 예산집행과 조직확대에 기생하는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는 막을 길이 없다. 예산은 낭비되고 근로자의 불만은 그것대로 쌓여만 갈 것이 뻔하다. 이같은 병리현상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산업재해보험제도의 집행에 포함제정과 같은 대기업의 이권이 개입되고 산업재해보험지시, 자금, 용자, 제도 등 구분별한 운영으로 예산이 유용되었다는 것이다.

세계각국은 세계화와 국제화로 표시되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자율성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수십년간 성장하여 온 관료조직이 지극히 비효율적이며 반민주적인 관료주의의 병폐를 낳기 때문에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관료주의가 가장 만연했던 소련 및 동구권의 몰락이 세계에 준 교훈인 것이다.

관료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사회 각 조직의 자율성을 보전하고 각계 조직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은 민주화할 것이



김말통

민주파 국회의원-노동위

요구된다. 사회 각 조직의 자율화와 민주화에는 지방자치제도와 노사관계제도의 적절한 운영이 그 핵심인데 김영삼정부는 이 두 제도의 개혁을 모두 미루어 놓고 뒷물 맑기 운동이나 의식개혁만 부르짖어 왔으니, 오늘날 개혁정책의 실종을 맞는 것은 사필귀정이라 할 것이다.

동서냉전이 끝나면서 세계각국의 주목을 받은 나라는 서독과 일본이었다. 두 나라는 노사관계에 있어 자율성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가장 잘 보전된 결과 세계최고의 경제적 경쟁력을 갖춘 성공사례로 떠올랐다.

미국인들은 냉전승리의 기쁨을 맛볼 겨를도 없이 서독, 일본에 대한 경제적 패배를 민회해야 할 필요성에 부심하게 되었고 곧 정권을 바꾸고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게 되었다. 요즈음 미국기업 혁신의 모델로 한국에 수입되는 신노사관계의 사회적 자율성과 산업민주주의 실현의 미국적 적용이라 하겠다.

한국정부는 미국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테마를 모방하여 '삶의 질'을 입으로 강

조하면서 정책실현에서는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구악을 답습하고 있다.

현정부가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실패를 회피하지 않으려면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가 지난 2년에 동안 연구 작성해 온 개정안과 회의록등 일체의 정보를 지금 당장 공개하여, 사회적 공론을 모아야 한다. 노동법 개정 자체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때 이 나라 국민은 민주주의를 피부로 느끼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율성을 스스로 배양하게 된다. 국민전체가 노동자로서이건 사용자로서이건 노사관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체적, 절차적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할 분야인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천할 기회가 만들어졌을 때 본의원이 대다수 노동조합, 단체들과 함께 주장하고 싶은 노동법개정안의 내용은 제3차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노동조합 지참참여금지 조항의 철폐와 국공사립 교고사의 노동3권 인정과 공무원 노조결성권의 확대이다.

복수노조의 허용은 군사정권의 유물인 노총독점체제의 개혁을 이끌어 낼 것이고

노조정치활동 허용은 복지행정에 민주주의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제3차개입금지 철폐와 교사 및 공무원의 노동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직업적 자율성과 인권의 신장을 결과할 것이다.

그리고 노사관계의 자율화, 자유화는 사회 각 부문에서의 능률성 제고, 자율적 개혁의 심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사회 각 부문조직에서의 민주적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개인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 사회의 자원을 재조직하게 될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기업내의 임금, 직업안정 외에도 교육, 주택, 교통, 기업비리, 환경경쟁에 대한 자율적 개선노력 등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포괄할 수 있다. 노동권 보장과 환경문제를 통상정책에 연계시키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대한 능동적 대처도 노사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미국의 동원법은 87년에 한국의 노동권 보호문제를 이유로 미국정부에 특혜관세대 상국에서 제외시킬 것을 청원하였고, 미국 정부는 89년에 한국등 일부 개발도상국들을 특별관세 대상국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미국해운회사도 한국을 노동권침해국으로 규정하여 한국에서의 신규투자보상사업을 중단했다.

우리나라가 96년 가입을 예정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재 무역과 노동기준에 대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준비위원회에서도 노동기준에 대한 문제제기의 길이 열려 있다.

## 사설

### 자성의 마음으로 미래를 밝히려

늦기울의 정취가 하나, 돌피 퇴색 되어가는 요즈음 떨어지는 낙엽만큼이나 잃어버린 동국의자존심을 상심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이연사 때는 어느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모두의 무심함과 인일함어 빛어 낸 전통국민의 책임일것이다.

단순한 국문과 학생 7명의 도덕성 문제로 사건이 결말 지어져서 는 인연다는 이아기다.

국문과 학생들의 1백8배, 3천배를 통한 참회의 의미는 아직까지 우리의 대학사회가 건강성을 잃고 있지 않다는 단편을 보여주고 있다. 스스로 스승에 대한 결례를 참회하고 무너져가는 학교의 학풍과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대학사회만이 가질 수 있는 순결성에서 나타나는 순수함의 발현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당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할 문제는 사태의 경위나 언론의 과대포 장에 의해 왜곡된 부분의 올바른 해명만은 아닐것이다. 우리가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은 동국에 대한 위기의식일 것임에 분명하다. 무너진 동국의 건학이념과 동국에 대한 자존심을 되찾는 계기로 이번 사건을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불교관련과목 강의 시간이 자칫 학생들에게는 학점만을 따기위한 시간으로 전락되지는 않았는지 다시한번 깊이 반성해왔으면 한다. 이것이 지금에 와서 어떤미미를 가질수 있게느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를들어 불교학개론이 가지는 과목의 의미만이 아닌 불교종립대학이라는 우리의 현실을 볼때 이는 그리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것 같다.

이런 작은 부분부터 우리의 자존심을 찾아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큰 분위기를 만들어 갈때만이 비로소 동국의 학풍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전 동국인은 자성의 기회로 삼고 무너져 버린 우리의 위치를 바로잡는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동국의 미래를 밝혀 나갈수 있는 시발점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불교종립대학의 위상을 되찾고 건학이념의 충실한 구현을 바라는 것이 전 동국인의 바람이라면, 이를 위한 매진의 촉매로 국문과 학생들의 계속되는 참회법회를 바라보고 이에 전통국민들이 자성의 자세로 경건하게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 전 동국인은 진정한 자성과 참회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혁신의 길로 접어들어야 할것이다. 지금까지가 잘못 되었다면 잘못을 반성하고 그 잘못이 표출되었다고 그들만을 나무 래지 말고 이를 계기로 올바른 혁신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위기에 빠진 우리들을 올바른 구출해줄수 있는 유일한 길일것이다.

자, 이제 우리 동국인은 자성과 혁신의 마음가짐으로 무너져 버린 동국의 자존심과 학풍을 되살려 위기에 빠진 동국의 미래를 구 출해 내자.

## 동국만평

박현진



동학의 주인정신?

## 대학순위보도와 종합평가 인정제

### 첫번째 교육·연구영역 평가

대학종합평가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본교에서도 21세기 특별개혁 위원회 구성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대학은 중앙일보 자체 대학순위 매김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2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어 대체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우선 대학종합평가기준을 토대로 한 교육영역과 연구영역의 자체평가와 함께 중앙일보에서 나타난 본교의 현황을 살펴보자 먼저 교육영역은 교육목적, 교과 과정, 수업, 학생들의 세부적 항목으로 나뉜다.

교육목적 평가기준은 "대학은 적절한 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를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하여야 하고 대내외 홍보 활동을 통하여 널리 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대학중성화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이다.

본교 교육이념은 학칙 1조에 명시되어 있듯 "불교이념에 입각하여 학습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 정 지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인데 이는 우리나라 대학교육목적 앞에 "불교이념에 입 각하여"라는 말만 덧붙였을 뿐이다.

교과과정은 "교육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편성 하고 충실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주 기적으로 개편하여 발전하는 학문 세계의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평가기준이다.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는 평가항

목에서도 다양성을 보인다.

△교양과 전공, 필수와 선택, 교과 편제의 적절성 △교양교과 다양성 및 개설 시기와 내용의 질 △전공 교과과 학과별 목표에 적절하고 체계적 개설인가 △실험실습 교육이 충분한가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융통성있게 운영되는가 △교양과정 을 개설하기 위한 노력이 적절한가 등이다.

이에 비춰 본교 교과과정은 교양 과 전공선택에 있어서는 40대 60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이명계의 경 우 현재 교양에 속해 있는 영역별 필수가 전공기초의 성격 띄고 있어 실질적 비율은 20대 80의 현재차이를 보인다.

실험실습 교육은 중앙일보 자체 평가에 따르면 20위권 밖으로 밀려 나 있어 실험실습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수업은 수업계획서의 내용과 활 용의 적절성 및 수업방식에서 다양 성이 고려되었는가, 수업단위의 규 모가 강과 특성에 비추어 적절한가

등이다. 이는 중앙일보 자체평가에서 교 수인당 학생수외도 통하는 면이 있다.

이 평가에서도 역시 20위권 밖으 로 밀려나 순위를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드러냈다. 학생 항목에서는 졸업후 취업실 태, 장학금수혜실적 등이다. 그러나 다량인것은 유일하게 중앙일보순 위보도에서 10위권안에 든 것으로 상 장기업 대표이사순위 6위를 나타낸 것에서 학생의 졸업후 취업실태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역시 80 년대 이전의 졸업생을 진로가 밝았 음을 보여줄 뿐이다.

다음은 연구영역에 대한 평가로 나뉜다.

연구영역도 연구실적, 연구여건, 연구지원체제이다. 이항목이 중앙일보가 중점적으로 순위매김 교육여건과 밀접상통한다 고 할 수 있다. △ 교수인당 학생수 △교수인

당 연구비 △학생1인당 교육비 △ 학생1인당 도서관비 △교사확보 를 △실험실습기자재 확보를 △SCI 게재논문편수 등의 항목으로 나뉘 어 평가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본 교는 10위권안에 단하나의 항목에 도 포함되지 못했다.

연구실적은 "교수는 연구를 성실 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이고 연구여건은 "교수 들이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관련 시설을 확보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 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중앙일보 자체 순위보도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나고 반문을 던질수도 있지만 이전에 우 선은 스스로 본대학을 대학시장개 방에서 살아남을 대책을 마련해야 겠다. 21세기 특별개혁위원회가 그 중추적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으면 한다.

다음호에는 대학종합평가항목중 사회봉사영역과 교수영역을 싣고자 한다. (양수정기자)

## 공 고

'95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 기간: '94.11.14(월)~11.16(수) 3일간
- 수강신청서 교부 및 접수: 소속대학 교학과, 학과
- 대상: '95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전원
- 유의사항
  - 가. 교과목의 학수, 강좌번호, 학점, 담당교수명 등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나. 본 수강신청에 의해 분반 및 폐강과목이 결정되므로 필히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기 바람.
  - 다. 제1학기 개인별 종합강의시간표는 소속학과에서 교부받기 바람.

## 교 무 처 장

## 산사의 생활 안내

동국좌선회에서는 산사의 생활을 체험하고 선의 진수를 맛보기 위한 동계 참선 정진수련회를 갖기로 하였으니 동국가족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일시: 1994년 11월26~27일(1박2일)

장소: 충남 수덕사

지도 법사: 한보광 정각원장

참석 대상: 동국대학교 교직원(참가비 없음)

문의 전화: 정각원 260-3015

## 참 회 문

귀의삼보하옵고 제불보살님과 역대조사 및 전 중도들에게 돈수 참회합니다. 지난 10월31일 초저녁에 교정의 성상을 모독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혼계하는 승려 교수에게 집단폭언과 폭행을 한 사건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종립대학에서 불교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승려 교수일 동은 자괴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교과의 첫머리에 있는 "거룩한 삼보의 언덕"이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국인들의 인성교육과 건학이념의 구현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왔으며, 진정한 포교와 불심을 심어주지 못했던 것을 재직 승려교수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불교종립대학에서 수차례에 걸친 법당의 방화와 성물 훼손이 자행되어 왔지만 속시원하게 밝혀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자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승려 교수 일동은 이를 동국중흥의 발전 계기로 삼고자 하니, 전 중도와 불교도들은 많은 질책과 끝없는 관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38년 11월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재직 승려 교수 일동

## 개 동국대학교 인천 한방병원 원

### —종합병원 첫 한·양방 협진—

### 동국대 한방병원 진료 교수 안내

병원장: 이원철 박사

동국대학교와 동인천 길병원은 동일한 건물내에서 한·양방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질병마다 협진을 통한 상호보완을 도모함으로써 한·양방 의사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동·서양 의학기술을 접합시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료과	진료교수	한방병원 특수클리닉
내과	이원철	중풍 클리닉
	신길조	관절염 클리닉
	임성우	허약아 클리닉
침구과	박성식	체질의학 클리닉
	김경호	산후 클리닉
부인·소아과	최윤정	비만 클리닉
물리요법과	김동호	금주 클리닉
신경정신과	신길조	요통 클리닉
인·이비인후과	김경호	신경성 위장 클리닉

※주소 인천시 중구 용동 117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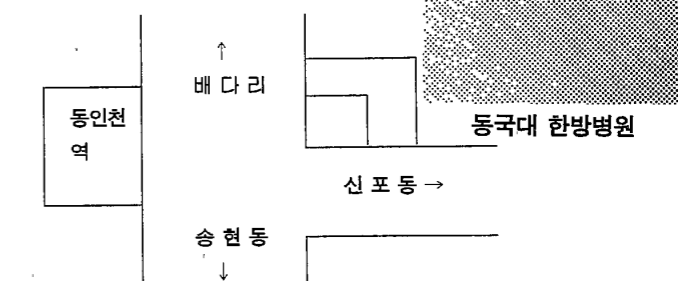
★약도

인천시 중구 용동 117번지

Tel: 032)764-9011-20

동국대 인천한방병원

동인천 길 병원



# 산림생태계 재인식·목재폐기물 재활용 급선무

## ‘그린라운드와 임업의 역할’이란 주제 환경세미나 열려

본 대학교 농과대학 산림자원학과 오정수 교수는 지난 3일 한국종합선시장(KOEX)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4회 한술환경세미나에서 ‘목재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날 행사는 ‘그린라운드와 임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미래 한술인산 주축 산림청 후원으로 국민신문과 한술임업산주식회사 임직원 및 임업관련 관계자 및 학계, 산업계 관계자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동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에 이어 좌장인 심종섭(전 화술원원장) 박사의 진행으로 제1주제인 ‘인공림 수종갱신과 경제림 조성’(충남대 이수욱교수), 제2주제 ‘목재폐기물 재활용’(동국대 오정수 교수), 제3주제 ‘해의자원 확보전략’(강원대 우중춘교수)의 세 주제가 발표되고, 각각의 토론 및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된 세 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주제 ‘인공림 수종갱신과 경제림 조성’을 발표한 충남대 이수욱 교수는 최근 임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Green Round (GR)와 임업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인식과 대응방식이 산림과 임업의 중요성과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GR의 제한 조치에만 급급해서 풀파구를 찾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지구환경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임업과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림에서 나오는 직접 수익 약7천억원의 가치를 경제단위로 환산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가치를 계산할 때 나오는 약 23조원의 환경적인 가치를 중요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sub>2</sub> 가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임업산림생태계이기 때문에 이런 내재적 가치가 목재를 벌채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적



인 가치보다 무위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성비와 대기오염 물질들의 파괴적 영향인 산림쇠퇴 및 산림고사과 같은 환경압력에 대처하면서 미래의 목재 수요에 대처할 인공림 조성이 필요하며, 차체에 정부도 환경 중심적 임업 육성으로 대변화를 시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토론자로 나선 고대식 교수(전북대)는 환경에 미치는 임업의 역할을 배고하기 위하여 우선 임업운영 주체의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좁은 국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GR에 대비할 무엇인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어 열린 제2주제인 목재폐기물 재활용에서 본교 산림자원학과 오정수 교수는 목재폐기물의 재활용은 임산관련공업의

필요하다. 이에 대한 외국의 장치 및 활용 방법도 제시되었다. 한편 폐목재가 자원화되기 위하여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데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제도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아울러 재활용 촉진센터 같은 상설기구의 설치 운용의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토론에 나선 최 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외국의 사례가 처리 실태를 소개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제3주제인 해의 목재자원 확보를 발표한 우중춘 교수(강원대)는 현재 국내 목재원자재 자급률이 18% 수준이며 2040년 이후에도 약 40% 정도만 충당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한데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성과 아울러 법적, 외교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환경 파괴국이나 산림자원 수출국이 아닌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추적과 해외 목재자원화 기술의 축적이 요구되므로 각국의 정책과 규제를 사례별로 분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에 나선 최 민후(임업연구원 경영부장) 박사는 외국투자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정책방향 기틀을 설명하였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각 주제 발표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있었고, 제2주제인 목재폐기물 재활용 촉진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공감하므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논의와 GR에 대비하여 임업의 역할을 제고하자는 토론과 더불어 2차 산업으로 인한 오염원의 정화기능으로서 산림생태계를 다시 인식하면서 이념의 세미나가 끝났었다.

강 규 영 (농과대 산림자원학과 조교)

지금이나 변함없는 자본주의의 종로병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오늘날 지배적으로 설명되는 자본의 통합과 경합은 실은 1960년대 이후 30년의 역사를 가지는 것으로, 동유럽과 소련의 정치적 격변보다 훨씬 앞선 경합이다. 따라서 오늘날 말해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은 통합과 경합과는 전혀 관련없는 것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빠져 있는 장기적 불황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문제와 정치문제의 분리 이데올로기를 유효하여 계급적대립 민족적대립 치환하려는 음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정치적 실천문제와 관련하여 켈리니코스와 허먼의 주장은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레닌이 지적한대로 “민족국가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한 최상의 조건들을 보장해주는 법칙이자 규범이며, 이러한 강력한 연관은 현대자본주의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한 식 원 (사회대 정의학과 강사)

## 현대 자본주의와 민족문제

### ‘민족국가’, 자본주의 발전 최선 조건인가?

1989년 동유럽과 1991년 소련에서의 정치적 지각변동 이래, 좌파 진영이 지적 무장해제에 이르렀다는 논의는 이제 낯설지 않은 하나의 상식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는 ‘위기의 수준을 넘어 역사로부터 파산 선언을 받고, 전향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민족분쟁, 특히 유고슬라비아 내전은 파산 선고를 최종 확인하는 것에 다음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성급한 사람들은자본주의와 파산 아메리카나가 세계사적 승리를 거두었고 인류에게 평화와 조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 ‘신세대 질서’가 출현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종언에 대해 다시 말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질서에 대해 말하는 사이에 인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주장과는 달리, 민족주의적 호소에 의해

정당화된 투차레의 걸프전을 치렀고, 미국의 힘에 의한 제3세계 군사개입은 또다른 상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스탈린주의 붕괴의 여파가 가져온 계급정치와의 진공상태를 대체하여 비아호로 민족주의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재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재등장한 민족문제를 마르크스주의는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공세로부터 마르크스주의가 현실 분석과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오래된 것 같았듯이, 현실은 마르크스주의에게 몇 가지 단서로 제공해주고 있는데, 다음 아닌 민족문제가 ‘자본의 전세계적 통합과 경합’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주의가 이 긴장관계의 본질을 해명할 때,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민족주의를 동일한 수박에 얹는, 신세계 질서라는 이데올로기의 은폐된 비밀은 비로소 폭로될 것이다.

최근 출간된 ‘현대자본주의와 민족문제’는 새롭게 구조 재조명되고 있는 현대자본주의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민족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둘러 싸고 전개된 ‘International Socialism’ 지상의 논쟁을 모아 놓고 있다.

논쟁을 통해,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당원이자 국제사회주의자인 알렉스 켈리니코스와 크리스 허먼은, 전향한 국제사회주의자인 나이젤 해리스가 자본 개별 민족국가의 연장을 우연적 요소로 보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민족국가와 세계시장 사이의 위태로운 균형을 예나

## 시사 초점 노의원 발언파문

### 극우강경세력 치밀한 계산속 엿보여

지난달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 국무총리인 민정당 노재봉의원의 발언은 여·야 안팎에서 적지않은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노의원 발언은 대정부 질문의 차이를 넘어서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대정부 비판 성명’에 가까웠다.

특히 “현 외교노선은 통일전선전략에 의한 남한의 분열과 고립 등 정부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북의 ‘통미분남’정책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지적한 대목에 대해 민주계 등 일부

자랑 의원들은 “김영삼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외교정책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수구세력의 대정부 ‘선전포고’의 일환”이라며 노의원의 정책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정계 일부 의원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인식의 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정계까지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의원의 발언파문은 이미 전날 내용을 알아낸 김종필 대표가 ‘사전조율’에 나섰으나 노의원의 대답은 “할 말은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국회 발언은 세계적인

발생전의 조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한반도의 평화 확보를 위해 북의 체제변화를 주장한 것은 이미 북한과 미국·일본과의 수교가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한편 민자당은 지난2일 당무회의를 열어 “노의원의 자성을 촉구”하며 김종필대표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과와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문제를 매듭지었다.

반면 노의원은 “외교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생각을 총리에게 외교문제에 대한 논쟁을 해보자는 의도 외에는 다른 뜻은 없다”며 여전히 자신의 발언을 굽히지 않았다.

이같은 내용들이 무엇을 겨냥한 것인지 또는 또다시 제기되기 시작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어수선한 국내정세에도 불구하고 서슴치 않았던 노의원의 발언은 개인의 통솔행위라기보다 여론 안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극우 강경세력의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부)

## 동약로

## 대자보 파동

“현재는 광고전성 시대”

“신세대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

요즘 은방골에는 선거유인물과 함께 각 동아리들이 갈고 닦은 그 동안의 실력을 선보일 각종 행사 포스터들이 즐비하지만 대자보를 들인 대자보들을 통한 행사



경 미니콘서트와 ‘포스터 3장이상 부착금지’ 등의 캠페인을 벌였으나 여전히 학내 곳곳에서는 각종 포스터들이 무분별하게 붙여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학생자치기구 선거 후보자들의 각종 유인물중 “희수하여 재활용 하겠다”고 밝힌 것은 두후보정

도 눈에 띈 것이다.

현재 학내 안팎에 부착되어 있는 행사 포스터 종류는 18가지 정도.

보통 3백여장 4백부를 제작하고 13~14만원 정도의 제작비용이 든다고 한다. “자기 노력의 성과물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마다의 과다한 광고는 돈낭비일 뿐 광고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료를 들고나와 조그마한 구석자리에 붙이는 한 학생의 말이다.

“포스터를 부착하려 나온 어느 한 학생의 말은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포스터 제작과 비용지출, 그리고 게시판의 부족과 무분별한 포스터부착을 잘 보여준다.”

제11대 총학생회(부회장은 박형규, 철4)는 남은 기간동안 환경문제에 사업을 주력하겠다고 말하고 ‘권인하의 환

(이민영 기자)

# 신입사원모집

##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 부문	인원	응시 자격
대졸 신입사원	○○명	1. 정규 4년제대학 모집 해당학과 전공자로서 95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기취득자 2. 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병역의무필 또는 면제자 (여자는 7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여자 학사 연구원	○명	1. 모집해당학과 전공자로서 95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기취득자 2.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여자는 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석사 연구원	○○명	1. 모집해당학과 전공자로서 95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기취득자 2.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여자는 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병역의무필 또는 면제자 우대

## 2. 전형방법

- 가. 대졸신입사원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면접 (필기시험일 12월 4일(일) 연구원(학사))  
나. 연구원(석사) : 서류심사 → 연구소 세미나 → 면접

## 3. 제출서류

-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당사 소정양식) ..... 1부  
나.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 1부  
다.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석사 지원자) ..... 1부  
라. 자격증 사본(소지자) ..... 1부

##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교부기간 및 교부처  
• 1994. 11. 10(목) ~ 11. 16(수)  
• 삼양사 본사, 부산지점, 대구지점, 대전지점, 광주지점, 마산지점, 전주공장, 울산공장  
나. 접수기간 및 접수처  
• 1994. 11. 10(목) ~ 11. 16(수)  
• 삼양사 본사 : 서울 종로구 연지동 263 (주)삼양사 인사부 인사과 (우) 110-725 전화 : (02) 740-7154, 7155

## 5. 기타

- 가. 모집인원중에는 계열회사(선일포도당주식회사,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삼양화학주식회사)인원이 포함되어 있음.  
나.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다. 우편접수는 11월 16일(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기 바람.

# 세계를 향한 도전과 패기- 삼양에서 꿈을 펼치십시오

## ■ 각 지점 및 공장 전화번호

- 부산지점 : (051) 463-3841 ~ 6 • 대구지점 : (053) 753-9901 ~ 8 • 대전지점 : (042) 626-2311 ~ 7  
• 광주지점 : (062) 525-9811 ~ 7 • 마산지점 : (0651) 793-2861 ~ 5 • 전주공장 : (0652) 210-2237 ~ 8 • 울산공장 : (0622) 779-4581 ~ 2

- 주식회사삼양사 (化纖, 식품, 사료, 化裁, 환경사업) • 삼양중기주식회사 • 선일포도당주식회사 •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 삼양화학주식회사 • 신원제분주식회사 • 삼양종합금융주식회사 • 주식회사삼양메디케어 • 디원실민파이버 • SY텍스타일 • 삼양그린연구소 • 양명회 • 수당정착회



### 이데올로기 종언이란

## 이데올로기 재해석 불가피 자기보호본능, 타인 '악마'로

우리는 얼마전 까지만 해도 이데올로기 하면 공산주의 이념을 떠올리곤 했다. 멀게는 동구의 공산국가가 지향하는 이념을, 가깝게는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한반도 북쪽의 사람들이 지향하는 정치 및 경제체제를 이데올로기라는 개념과 한데 묶어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다. 한마디로 "이데올로기=공산주의"라는 등식이 한반도 남쪽에 살고있는 우리들의 의식세계 한 구석을 이른바 지식이란 이름으로 의연하게(?)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구권의 중추 소련이 해체되고, 동독이 서독에 흡수됨으로써, 즉 공산주의체제가 도처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면서 어느덧 우리의 뇌리에서는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도 빛 바랜 옛글자로 지워져 가고 있다.

그러면 누구의 예언대로 바야흐로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 이 물음은 위의 등식이 타당한 가설로 검증될 때 비로소 그 긍정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이데올로기=공산주의"라는 등식은 자칫히 일상적인 우리의 통념일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다시말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는 성립될 수 있으며 "공산주의=이데올로기"라는 등식은 성립될 수 없다는 뜻이다. 19세기 유럽 시민계급의 "자유주의(Liberalism)"에 이은 20세기의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는 각 인간집단의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칸트의 말대로 우리 인간은 선형적 직관을 지니지 못한 존재이다. 이러한 지구촌에서 진리 또한 그것이 살아있는 참진리이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 부단히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에 서방진영에서는 동구권 국가를 독재체제 및 획일사회로 구성된 "이데올로기 집단,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부르곤,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동구권에서는 이쪽을 사회경제적 하부구조를 도외시한 채 문화적 상부구조(종교, 형이상학, 도덕, 예술, 법률)만을 숭배하는 "이데올로기 집단, 자본주의자들"이라고 응수했다. 이 양쪽은 서로가 상대방을 이데올로기 집단, 그래서 타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치부했던 것이다. 다시말해 저쪽은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더럽히는 사람들이요. 이러한 발상, 즉 상대방의 악마화는 곧 자신의 천사화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남의 세계를 거짓세계로 끌어 올리는 전략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방의 악마화 작전은 국가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그룹을 내지 각 개인들 간에, 아니 심지어 각 종교들 간에도 종종이된다. 흑백의 인종분류, 영호남의 지역 갈등, 오렌지족과 지존과 간의 적대감, 그리고 자기 중파가 아니면 모두 이교 및 사교로 몰아부치기 일췌인 요즈음의 종교계동등

이 모두 이 악마화 작전을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자기 합리화를 찾는다. 말하자면 이를 집단 내지 이를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은 모두가 이른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인 셈이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은 이데올로기를 버리고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는 오늘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보호본능 속에서 부단히 타인을 "악마"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로 항상 불안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독일의 진정한 리얼리스트 비히너(G. B. Vichner)는 악마라는 단어는 천사와의 대비를 위해서 만들어 졌다고 말한다. 이 말은 자유는 천국을 빛내주기 위해 만들어진, 아니 '조작'된 단어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 어느 성현은- 물론 다른 콘테스트에서였지만- 천국과 자유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고 했다. 우리는 다만 이 중에서 천국의 천사는 내 마음 속에, 자유의 악마는 내 마음 속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스위스의 극작가 프리쉬(Max Frisch)는 안티세미티즘의 희생자 안드리아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세상에는 저주받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제때대로 다룰 수 있습니다. 눈짓만 한번하면 이들은 줄지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이것을 원하지 않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공중으로? 이것은 공중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중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날 이것을 싸잡아서 죽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

정물화에서 빛의 명도는 그림자 쪽의 터치가 얼마나 강하냐에 좌우된다. 그림자 없는 빛은 우리의 눈을 찌를 뿐 아름답지 않다. 빛의 아름다움은 그것을 빛이게 해주는 그림자에 빛을 지고 있는 것이다. 동짓달 칠월같은 밤의 어둠,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칠월 한낮의 작열하는 태양의 고마움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면 명암의 세계는 서로 떨어질때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렇기에 밤에서 낮으로 가는 길목에는 대문 또한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듯 빛과 어둠의 세계가 우리 사회에, 아니 우리 마음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할 때, 너 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이데올로기 추종자라는 사실을 거부하지 않게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이데올로기는 그 종언을 고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통일의 길 또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임 호 일  
(공과대 독문과 교수)



지난 4일 13시부터 18시까지 명진관(A 104)에서 다섯 시간에 걸쳐 '한국불교민속학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하에 한국불교민속학회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한국불교민속학회에서 불교민속학의 발전을 위해 내뱉는 대외적이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불교와 민속의 만남이라는 문화영역에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불교민속학의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다섯 분의 주제발표와 세 분의 종합 토론자가 엄선되었다.

먼저 1부로서, 국교와 최후의 교수의 사회로 사학과 홍윤식 교수의 '불교민속의 범위와 성격'이 발표되었다. 불교민속의 발생에서 성격·범위·대상에 이르기까지 개괄적인 논의였다. 특히 불교민속의 대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불교민속과 민속불교의 개념설정이 뚜렷해야 한다. 홍교수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교민속은 불교가 주체가 되어 민중에 의하여 전승되어온 민속을 수용, 융합한 형태를 지니는 것이라면 민속불교는 재래의 민속이 불교와 융합 내지 혼합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문제에 대해서 종합토론시 열띤 논쟁이 전개되었다. 홍교수는 이어서 구체적인 불교민속의 대상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신앙의례적인 면, 구비전승의 면, 예능적인 면, 사회구조적인 면이 그것이다.

### 과학에세이

#### 컴퓨터 이야기

#### 인터넷을 알자

인터넷(Internet)이란 세계적인 정보 자원들의 그룹 이름으로써 1970년 미국방성에서 추진한 네트워크인 아르파넷(ARPANET)으로부터 시작된 이후 계속 확장되고 대체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고 있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의 이름이다. 인터넷은 단순한 네트워크나 정보의 집합체가 아니며 컴퓨터자원과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그야말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이다. 인터넷을 우리가 상용 BBS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터넷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인터넷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터넷과 관련지어 알아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인터넷 관련 용어  
O 유닉스(unix): 유닉스는 컴퓨터 운영

### 컴퓨터 이야기

#### 인터넷을 알자

체제의 하나로서 워크스테이션 이상의 기종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범용 운영 체제이다. 유닉스를 잘 아는 것이 인터넷의 활용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닉스 자체가 하나의 큰 분야이므로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과 관련된 이 있는 유닉스 명령을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O 호스트(Host): 개별적인 컴퓨터를 가리키며 인터넷에서는 보통 인터넷에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일컫는다.

O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 강력한 단일 사용자 컴퓨터(다중 사용자 가능)

O 클라이언트(client):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이용하는 컴퓨터(또는 프로그램).

O 서버(server):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또는 프로그램)

### 불교 학술세미나 초록

#### -한국 불교민속학의 과제와 방향

## 불교·민속...다각적 검토의 장

첫째, 부처님의 탄일-출가-성도-열반을 기념하는 4대 명절과 부처님에게 드리는 예배 곧 예불과 범회 등의 불사.

둘째, 사자의 명복을 비는 49재나 백일재, 고혼의 위령제와 생전에 미리 왕생극락의 길을 닦는 생전에수제 등의 사령제 셋째, 현세복락을 위한 소원성취를 기도하는 각종의례 곧 자식발원과 장수연명을 기원하는 칠성기도, 사업성공과 번창을 비는 산신기도, 병마와 재액 퇴치를 비는 신중기도 등이다.

이 세가지 가운데 둘째와 셋째에 해당하는 각종의례는 민간에서 신봉되는 기괴한 불교로서 여러가지 현공의례가 수반된다.

다음으로 인천시립 전문대의 편무영 교수가 '한국불교민속학의 현대적 과제'란 제목으로 불교민속의 '고유론'의 비판과 계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불교민속이란 용어가 쓰여진 않았지만 1920년대 최남선과 이능화는 한국민속학에 있어 이미 불교민속론의 문제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후 양계현과 홍순창은 주로 불교의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일본의 불교민속학 현황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일본민속학의 입안자라는 야네이 보몬 최남선의 발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최근의 고라이(五來) 학파의 접근방법과 함께 불교민속에 대한 위상 정립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세명대학 이창식 교수의 '불교민속과 세시풍속'이란 발표가 있었다. 불교민속학의 입장에서 불교세시풍속

의 양상과 의미, 민속사에서의 양상들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불교세시풍속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마을형과 절을 배경으로 하는 절형으로 나누었다. 마을형과 절형은 향유층의 성향과 공감에 따라 열린 마을형, 닫힌 마을형, 안채비절형, 바깥비절형으로 하위분류 하였다. 마을형보다 절형이 불교 교리권에 들어와 있고 절형에서도 바깥비절보다 안채비절이 정통적인 불교의례에 부합되어 전승된다.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통한 단탄한 분류시도가 요망된다.

다섯 분의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종합 토론에 들어갔다.

먼저 김희태 김태곤 교수가 발표자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소감을 피력하고 종교현상 전반의 어쭙우치가 필요하며 민족의 심상을 구현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민속학의 과제라고 보았다.

강원대학의 김의숙 교수는 불교민속학의 한국민속학 안에서의 위상과 개론서 등에서 기술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절의가 있었다.

한림대의 남근우 교수는 불교민속과 민속불교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 문제를 질의했다.

이는 홍교수의 잠정적인 정의로 대신할 수 밖에 없었고 앞으로 이러한 세미나를 여러 차례 거쳐 민속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모임에서 개념 설정이 있어야겠다는 데 전원 동의하는 것으로 발표회를 마무리 했다.

오 출 세  
(인문대 국문과 교수)

## 효성은 노력하는 점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 '95년도 대졸 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부문**

구분	전공	모집인원
인문사회계	관련전학과	400명

**2. 응시자격**

- 1995년 2월 4일 현재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기취득자 (대학원 출신자는 유예함)
- 1967년 1월 1일(생년)은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단, 병역특례보충역 해당분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할지도 기원 가능함)
- 해외여행에 결박사유가 없는 자

**3.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작성(인성)검사·면접 및 신체검사  
(2차 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일정은 1차 합격자 발표시 공지예정이며, 요성문(주)에서는 영사시험을 실시함)

**4. 제출서류**

- 1) 입사지원서(양곡을 소정양식).....1부
- 2) 대학(원) 전학내 성적증명서.....1부

**5.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 일시: 1994년 11월 30일(수) 14:00
- 2) 장소: 접수처 및 동일(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도 함)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1) 기 간: 1994년 11월 11일(금) ~ 11월 18일(목) 09:30 ~ 17:00 (단, 일요일(11/13)은 교부 및 접수하지 않음.)
- 2) 교부처

지역	교부장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0 효성인력관리위원회	(02) 707-7090~2
부산	부산시 중구 중앙동 21-1 효성물산(주) 인사부	(02) 771-1100 (교선: 808~810)
대구	대구시 서구 내당1동 242-1 (명성빌딩 6층) 효성물산(주) 대구사무소	(051) 463-1972~7
광주	광주시 서구 동성동 652-11(광주상공회소빌딩5층) 효성물산(주) 광주사무소	(062) 362-1175 363-1176
대전	대전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계회관 11층) 효성물산(주) 대전사무소	(042) 532-2180~2
울산	울산시 남구 대암동 588 동양나미온(주) 울산공장 인력관리부	(0522) 78-7142~5
창원	창원시 내동 정원기계공업기 A-1지구 효성중공업(주) 창원공장 노무부	(0551) 68-2042~4

**3) 접수처:** 서울지역 교부처와 동일 (유선으로 접수코자 하는자는 "효성인력관리위원회" 앞으로 발송)

**7. 기타**

- 1) 우원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된 등기우편에 한하여 접수함.
- 2) 군 면역 복무중인자는 '94년 12월말 이전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3)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의해 지원 유예함.
-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효성인력관리위원회로 문의바람. 전화: (02) 707-7090~2

### 효성인력관리위원회

# 동국문학의 현주소 찾기

## 상이한 개성·문제의식바탕으로 한국소설 주류형성 치열한 작가정신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전통 꽃피워야

동국문학의 전통을 시에서 찾으려는 태도는 지극히 온당하다. 만해, 미당, 석산, 지훈에서 용틀임을 시작하여 최근 윤재림에게까지 이어지는 우람한 시의 산맥은 그대로 한국시사와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동국 문학이 시 분야에서만 탁월한 기량과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비록 양적인 면에서는 시의 그것과 비견할 바가 못되지만, 동국 출신의 소설가들은 인간과 삶에 대한 다양하고도 본질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한편,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예민한 관심을 기울여 한국 소설사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작품을 생산해 왔던 것이다. 시의 만해나 미당에 대한 다양하고도 본질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한편,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예민한 관심을 기울여 한국 소설사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작품을 생산해 왔던 것이다. 시의 만해나 미당에 대한 다양하고도 본질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한편,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예민한 관심을 기울여 한국 소설사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작품을 생산해 왔던 것이다.

### 모발탄

곽하진, 서승해 등과 함께 동국 소설의 최정점이 될 수 있는 이범선은 전후 한국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꼽힌다. 그의 소설의 특징은 양

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정직한 삶의 모습에 친연적인 애정과 신뢰를 보내는 한편, 그들의 소박한 신념과 청순한 기대를 유린하는 사회에 강력히 항의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5회 동인문학상 수상자인 '오발탄'은 당시 한국사회가 겪고 있던 참담한 시련과 고통을 가장 작나라라하게 제시한 작품으로, '오발탄'이란 어휘는 사회적 유행어로 회자되고 사회 고발 방식 프로그램의 타이틀로 사용되기도 했다.

### 여류 이단부흥

김문수의 등단 과정은 꽤 화려한 편에 속한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1958년) 충청일보에 단편 '여류'를 발표하였고, 이듬해 자유신문 신춘문제를 통과한 뒤, 1961년에는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이단부흥'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가로 데뷔하게 된다. 초기에는 성적 타부 등 외국문명의 문제를 통해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합리화할 수 있는 모델의 창조를 모색하던 그의 작품 세계는 점차 도시 일급자들의 일상적인 삶과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선회하고 있다.

한홍환 교수(국어교육)의 소설은 유니크한 문체와 섬세한 감수성으로 주목받아 왔다. 아름답고 정확한 문체에 대한 그의 엄격한 자기 검열은 정평이 나 있으며, 때로 읊술하고 임담한 시대적 분위기를 절제된 감성과 알레고리적 수법으로 처리하는 작품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 태백산맥 이리랑

'태백산맥'과 '이리랑'의 작가 조경래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상층을 가늠하는 데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조망하여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태백산맥'은 이 때까지 금기로 여겨졌던 적의 빨치산의 행적을 이태로기 문제가 아닌 토지 소유 문제로 파악한 문제적 작품이며,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의 궁핍한 삶과 깨지지 않는 저항 의지를 생생하게 그려낸 '이리랑' 또한 그의 작가적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준 작품이다.

### 황색인 거룩한 전쟁

늦깎이로 문단에 진출한 이상문과 이원규의 활약도도 지속적인 작업은 우리의 귀가 귀에 울려 준다. 주로 단편과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던 이들 두 작가는 월남전을

우리의 동족 상쟁과 결부시켜 새롭게 해석한 '황색인'(이상문), 철저한 자료 조사와 현지 답사를 거쳐 반세기에 걸친 유·무명 전사들의 합일 독립 투쟁을 그린 '거룩한 전쟁'(이원규) 등으로 소설적 관심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객지 장길산

한때 동국대학교 철학과에 적을 두었던 황석영은 주로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과 신연화의 후유증을 고발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객지'로 문단적 명성을 획득한 그는 대하소설 '장길산'을 펴냄으로써 한국소설사에 뚜렷한 자기 세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밖에 탄탄한 불교적 신앙심과 소양을 바탕으로 불교소설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정찬주, 추리소설의 기법을 차용하여 동양의 신비주의와 우리 현대사의 이면을 천착하고 있는 이용범 등이 동국 소설의 화려한 풍경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이렇다 할만한 작가가 나타나지 않아 왔다는 이들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동국 문학의 찬란한 전통은 선배들의 치열한 작가정신과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꽃피워진 것이지 거저

### 글 쓰는 순서

1. 시
2. 소설
3. 평론 수필 아동 문학 희곡
4. 월북작가
5. 총론 - 좌담

얻어지게 아니다. 따라서 동국문학의 전통이란 엄밀히 말해 그들의 만나면 조사를 죽이려는 경구가 있는 데, 이제 우리는 진정한 애정으로 우리의 선배를 죽이고(7) 더욱 친연한 동국의 새 전통을 세울 때가 되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정체된 늪으로 변해 마침내 썩고 말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우리가 동국문학 전통을 운운하며 현상에 만족하고 있을 때, 대하대 문학도들은 밤잠을 설치면서 고뇌하고 습작하여 우리를 뒤쫓고 있지 않은가. 한 줄의 문장, 한 편의 작품을 위해 며칠밤을 하얗게 새우기도 형편한 눈빛으로 독서를 하고 진지하게 함평회를 갖는 재학생들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그리운 이즈음이다.

### 장영우

(문과대 국문과 감사)

### 달 하나 천 강에

### 남산의 단풍을 바라보며



어느새 절기는 입동을 지나고 있다. 창밖에 보이는 남산의 단풍이 아름답게 질어간다. 하늘은 맑은데 태양은 어디쯤 와있다. 서울의 오전은 12시32분(서울 위도 37.5°N, 경도 127°E, 우리시계 표준은 135°E) 태양남중고도(약 36°)도 많이 낮아져 햇빛이 깊숙이 들어온다(하지때 76°, 춘추분 52.5°, 동지때 29°).

정남 방위를 기준으로 약북하면 원흥관 연구실들의 좌향은 33° S-W, 남산정상상의 서울다위를 마주보게 좋은 편이다. 남산은 이만하면 보기 좋은데 다른 산들은 어떨까? 서울의 좌청룡이라고 하는 남산은 아예 능선도 보이지 않는다. 십만분의 일 재지도도를 봐도 길만 나고 있고 등고선이나 사리줄도, 풍경이 맑아져서 남자들이 맥을 못뜬다는 우스갯소리가 심상찮게 들린다. 원래 도심부 저지대는 교통도 쉬우므로 고층고밀도로 하고, 산기슭 고지대는 저층저밀도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이다. 순리대로만 하면 도시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의 신과 인공의 건물군이 이루는 스카이라인도 훨씬 나아질터인데,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현상이다.

서울 주변 웅만하 산등성이는 거의 다다다다한 집들로 들어지고 있다. 각종 선거 때마다 선심을 기회로 야금야금 늘어나 이제는 달동네로 미화되고 있는 역설이 안타깝다. 더욱이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저마다 잇속을 추구하면서 한층 더 고밀화될듯한 형편이니 난재의 고착화가 심히 우려된다.

남산은 모든 시민이 꼭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양, 남산 재모습 찾기 운동은 매우 큰 위력을 보이고 있다. 이것만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남산경관을 가로막은 죄로 멸망한 어떤 건물은 방금 폭파될 지경에 와있다. 남산보호는 상징적으로 막중한 의미가 있었으나, 남산에만 매달려 더 큰 근본문제를 간파한다면 남산이 오히려 죄를 짓게 되고 마는 셈이다.

서울 정도 6백년 기념사업은 대형사고들의 총적으로 행사도 시들한채 끝년이 저물어 간다.

부실공사 만연과 교통사고 왕국의 명성이 자자하고, 쓰레기 골산과 모든 강의 오염으로 국토가 병들어 있는데, 신듯한 포스터나 만화고 감상적 기념행사를 하면서 상징적 운동에 머물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허세와 허욕을 버리고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국토환경 개선을 위해 올바른 새 방향잡기를 서둘러 시작할 때이다. 남산만 산이 아니고, 금수강산 은국토가 온 백성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 이민섭

건축공학과 교수

### 문학단신

#### ◇창작극 '어머니' '산(山)사람들' 공연



극단 민예는 '월북작가 창작극 부활 시리즈' 두번째 공연 '어머니' '산 사람들' 두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88년 월남북 작가작품에 대한 해

급조치이후 문학계에서 깊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작가 이태준씨의 작품 '어머니' '산사람들'은 혹독한 빈곤속에서도 명백히 흐르는 가정의 잔란한 사랑을 그려내고 있다.

이태준작-김태수연출/오는 30일까지/마로니에 극장/문의 744-0686

#### ◇문화학교 서울 '무료영화제' 개최

'문화학교 서울'은 회원 초청 무료 영화제를 마련 오는 18일부터 21일 까지 하루 3차례 '동경영화제' '모리시' '산사람들' '나쁜 피' '희생' '빨간 패지' 등을 편집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문화학교 서울/문의 595-8002

### ◇소설가 이상문(국문74졸) 동문을 만나

### '황색인'에 이어 '태극기가.....' 완간예정 선후배 협력모색만이 동국문학 발전의 길

은 작품이라고 평한것과 달리 작가는 "그때 시점에서는 월남전의 의미를 좀더 깊이있게 다루지 못했음을 말한다."

역사비판적 시각을 그이상 가질 수 없는 안타까움이 이번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립니다'를 쓰게했다. 이 집필을 위해 '90년 4월과 12월 두차례 일간지의 객원기자로 사전적재를 다녀오기도 했다. 원제는 '아, 너지나 해'였으나 출판사와 협의의 바뀐게 된 '태극기가.....'는 베트남전을 다룬 다른 어찌보면 '황색인' 속편이라고 할수도 있다.

13년간 들어왔다는 '전후 소설가 답지'였다. 그의 용모는 작당때문인지도 모른다. 현재 한국제지공업연합회이사로 재직중인 이상문동문은 "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문학작품계에 한정되지 않아 생각이 범위가 넓고 깊이가 깊어"며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문화하는데 상당한 도움

을 준다"고 덧붙였다. 직원이 된 근한 후가 그의 집필시간이 된다.

그 당시 "한국 최고의 국문과라는 긍지를 가졌었다"고 재학생들을 회상하는 이상문동문은 "서정주시인, 양주홍교수, 조연현교수의 강의로 타대학의 질서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얘기한다.

"문정희, 마중하, 홍신선등 교내 이터서나 시인을 만날 수 있었던 반면 산문분야에서는 박태원이라고 얘기할만큼 소설 쓰는 사람은 외로웠다"고 한다. 이는 '실함'이라는 동인을 만드는데 이르는 데 여기에 합께한 이가 김창범시인, 이명주시인, 현재 경상일보 편집국장 김병길 동문, 순천대 교수인 임성중 동문, 본교 최순열교수이다. '실함'에 참여했던 최교수 역시 "기성문단에 대한 반성적 입장을 갖고 대학단행성의 필요성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고 답사를 얘기한다. 71년 창립

되어 졸업과 동시에 끊어지기는 했으나 당시 활자로 동인지지를 내기도 하고 함평회등의 활발한 활동에 기성문단의 주목을 받게 했다.

"타학교출신은 동지였으나 문학학교 출신 문인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 하는 이상문동문은 "예를들어서 국문과에서 진행하는 창작교실에 강평, 강의등의 참여들로 선후배가 계속 연계하여 서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동국문학이 발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라고 반문한다.

"주위에는 사회변속에서 시달린 이들이 많다. 내 글을 통해 그들이 위안과 삶의 생기를 얻는 것이 바람"이라는 이상문 소설가는 마치 막으로 '삶에서 치기와 진지성을 함께 가지라'고 당부한다. "진지성의 부족은 언어행을 떠나면서 준비를 제대로 안한 것과 같다" (김소영 기자)

◇소설가 답지 않은 용모를 지닌 이상문동문은 재학생시절 대학단행성의 필요성으로 '실함'이라는 동인을 만들기도 했다.



"소설은 다른 장르와 달리 내내나의 능력에 따라 구체적인 집들을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소설가 이상문(국문 74졸) 동문은 최근 3년간 집필했던 장편소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립니다' 3권 출간, 이달말까지 4.5권을 완간할 예정이며 여기서 '월간문학'에 장편 '눈과 저편'을 10회에 연재하는 등 그만큼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는이도 드물다.

'83년 '월간문학'지에 '선남'으로 비교적 늦게 등단한 것에 대해 이 동문은 "오히려 성숙된 의식과 축적된 체험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의 화상시절을 함께했던 본교

최순열(국어교육)교수는 그에 대해 "뒤늦은 등단때문인지 몰라도 문학에 대한 끝없는 갈증을 지녔음을 느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얘기한다.

대한민국문학상, 제5회 동국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작품으로는 당시 문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베트남전쟁의 실상을 고발한 소설 '황색인', '은밀한 배반', '계단없는 도시', '영웅의 나라' 등 많은 창작집을 낸 이 동문은 자신이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으로 89년 발표한 '살아나는 팔과 지름 쓰고 있는 '태극기가.....'라고 밝힌다.

'황색인'은 베트남전쟁과 우리현실을 동일한 차원에서 서술한 뜻깊

# 교수 초빙

## ■ 1995학년도 제1학기 초빙분야

### ● 서울캠퍼스

학 과	전 공 분 야	학 과	전 공 분 야
불 교	불교사회사상사	생명자원경제	농업경제학 및 농업개발경제
국 어 국 문	현대소설 및 문학이론	농업발전 및 농업정보체계	
영 어 영 문	영어학(형태론)	전 자 공	반도체공학
	영미소설(18세기 영소설)	컴 퓨 터 공	컴퓨터공학
독 어 독 문	회화 및 작문(외국인)	전 기 공	전동력 응용 및 제어
	위상수학	기 계 공	기계공학 또는 CAD/CAM
전산통계학	소프트웨어공학	동 역 학	동역학 또는 기계제어
반도체과학	반도체물리학	토 목 공	수리학 및 수문학
경찰행정	경찰학(이론 및 실무)	건 축 공	건축이론 및 설계
사 회	산업·정보사회학	산 업 공	수리계획론
경 제	노동경제학 또는 경제이론	국 어 교 육	제조기술 및 설계(기계공학전공자 가능)
무 역	국제통상관련분야	교 육	현대문학(시론과 문학사)
	무역관련영어분야(외국인)	교 육 과 정	교육과정
경 영	재무관리	지 리 교 육	지리학방법론
	경영정보/생산관리	가 정 교 육	유류학 및 가정학 연구방법
회 계	세법 및 세무회계	미 술	조소(결조) 한국화(예체화)
정보관리	행태론적 MIS	연 극 영 화	영화론기 및 이론

### ● 경주캠퍼스

학 과	전 공 분 야	학 과	전 공 분 야
불 교	선학	불 교 아 동	불교동역연구방법론 및 통계학
국 어 국 문	불교음악	일 어 일 문	일본사회론
영 어 영 문	영어학(형태론)	국 사	한국사(현대사)
독 어 독 문	회화 및 작문(외국인)	화 학	유기화학
전산통계학	소프트웨어공학	생 화 학	세포생물학
반도체과학	반도체물리학	전 산 통 계	전산응용학(그래픽스 이론)
경찰행정	경찰학(이론 및 실무)	전 자 계 산	전산학
사 회	산업·정보사회학	경 영	재무관리(투자론)
경 제	노동경제학 또는 경제이론	정 보 산 업	분산정보시스템
무 역	국제통상관련분야	합 의	서울·한방내과
	무역관련영어분야(외국인)		경주·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정구과
경 영	재무관리		인천·한방부인과, 한방물리요법과
	경영정보/생산관리		경주·해부학, 병리학, 예방의학(산업의학), 내과(혈액종양학), 상부외과, 진단방사선과(중재적 방사선학),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구강외과)
회 계	세법 및 세무회계		포항·내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가슴술), 성형외과, 소아과, 해부병리과, 이비인후과, 안과
정보관리	행태론적 MIS		

참다운 사람을 길러낼  
훌륭한 스승을  
모십니다.

1. 초빙인원: 각 전공별 약간명
2. 자 격
  - 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나. (의학계) '95년 4월말 군전역예정자로 지원가능
  - 다.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의학계, 예·체능계열은 예외), 1952년 3월 1일 이후출생자 (특정 및 의학계열은 예외) 다.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구현에 동참할 분
3. 제출서류
  - 가. 이력서(근무지, 전공분야 및 전화번호를 우측상단에 명기, 명함판사진 부속) ..... 2부
  - 나.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 각 1부
  - 다. 경력 및 재직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증빙 서류) ... 각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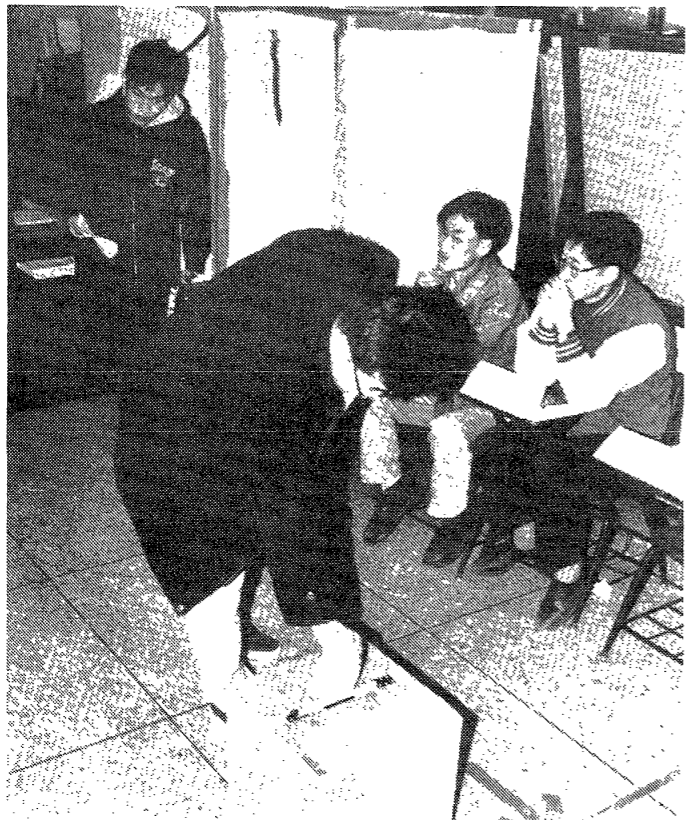
- 라. 연구실적 목록(제목, 연구자, 발표지, 발표일자 명기) ..... 2부
- 마. 연구실적물(학위논문과 '91. 3. 1 이후 발표된 논문 및 저서) ..... 각 1편
- 바. 임용후 수행할 연구계획서(4,000자 내외의 분량) ... 1부
- 사. 전문의 자격증 사본(의학계열 지원자에 한함) ..... 1부
4. 제출기간 및 제출처
  - 가. 1994년 11월 14일(월) ~ 11월 16일(수) 17:00까지
  - 나. 서울 및 경주캠퍼스 교무과(지원하는 캠퍼스별로 접수)
5. 기 타
  - 가. 외국어능력 증명서는 본인인 남한인 번역문을 첨부
  - 나. 서류심사후 초빙예정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다.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울캠퍼스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60-3031~3034]  
경주캠퍼스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561)770-2031~2034]

# 제27대 총학 투표 돌입

## 오는 10일 개표로 마무리



◇지난날 아간캠프를 시작으로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 농경과 교수채용 마찰 교수·학생면담 자리 가져

농업경제학과 학생회(회장=박동혁·3)는 교수채용 공고문제로 인해 지난 1일부터 농경과교수측과 면담에 들어갔으며 비상학생총회를 가졌다.

1학기의 농경과학생들의 교수채용에 대한 학생집회능력성취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농업경제학전공자와 계량경제학전공자 각 1명씩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지난날 교수채용 공고에는 농업경제학 및 계량경제학 전공자와 농업발전 및 농업정보계전공자를 모집하여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하였다.

농경과 대책위원회와 가진 지난 13일의 면담에서 교수측은 "합의문대로 학교측에 공고를 보냈으나 학교측이 분야를 포괄적으로 하라고 통보했다"며 "농업정보 체계학속에 계량경제학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경과 대책위는 "학생과 합의한 것보다도 학교입장이 더 중요하며 합의문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교수측이 말했다"며 계량경제학 전공자가 채용되어 과발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농경과 학생회는 지난 3일 비상학생총회에서 합의문은 교수와 학생의 약속이므로 사수해야 한다. 이번 공고는 교수측의 일방적 약속파기이므로 합의문을 따라 다시 공고가 나가야한다 등의 결론을 내어 교수측에 전달했다.

농경과 교과위원회장 김용민(4)군은 "학생과의 사정토의 없이 합의문을 불이행한 것이 문제이고 이에 대한 교수측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과행적으로 나간 공고는 과발전, 교육시장개방 및 대 학생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합의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고동아리 '애드러쉬'는 어제(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제4회 광고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학생회관 3층 상설전시관에서 열리는 전시는 △광고작품전시회·시사·시거리광고제 △강연회 △매주시음회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제27대 총학생회 선거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오늘(9일)과 내일(10일)에 걸쳐 진행될 투표만 남았다.

지난 3일에 있었던 2차 유세는 이영재·이상환씨가 먼저 유세하고 안진우·곽유찬씨가 뒤이어 유세했다.

이·이조는 곡문과 사건에 대해 "교수폭행이라는 사건은 충격적이었으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다"며 언론에 대해서는 "오로지 사실만을 기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곽조는 이사건에 대해 "모두가 중립학교의 일원으로서 성상과 스님들께 보인 모습을 되돌아 보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불교의 참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더불어 "재단과 학교당국에서는 아픔을 배려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일 3차유세는 안·곽조의 유세후에 이·이조의 유세가 있었다.

안·곽조는 '법통국 구교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하며 김정권의 교육정책은 대학에 대한 지위를 자율화라는 명분으로 무마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2대를 마련한 민족대학건

설을 피력했다. 또 통일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일방안 대토론회'를 제안하고, 전학대의 건설과 건전한 대중매체를 바탕으로 한 학생회구조의 민주주의 실현을 내세웠다.

이·이조는 '분권과 자율, 개성'을 담아낼 수 있는 '네트워크 학생회'를 제안하며 진정한 생산자로서의 학생회가 되기위해 권위를 인정받는 '작고 빠른 총학생회' 건설을 다짐했다. 총장선출에 대해서는 "학생·직원의 참여를 배제한 직선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합의가 없는 선거가 진행될 때 "총장불신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통일운동은 친북성을 탈피하고 남한국민의 현실에 근거한 대중적 통일운동으로 풀것을 제안했다.

한편, 아간캠프는 어제(8일) 오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으며, 9·10일 양일간 투표가 진행되며, 10일 오후 6시부터 학생회관 로비에서 개표가 진행됐다.

투표지역은 총 7개로 증가했으며, △1지역-법대, 사과대, 경상대 △2지역-문과대, 이과대 △3지역-사법대 △4지역-공과대 △5지역-불교대, 예술대 △6지역-농과대 △7지역-아간캠프등이다.

### 경주총학 2개조 입후보 23일부터 투표 시작

경주캠퍼스 제12대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윤길주·국제경제4) 이하 중선위는 지난 4일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마감과 함께 오후6시 1차 미팅을 가지고 구체적 선거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총학생회 정·부회장은 후보는 기호1번 배문석(철학3), 고희철(경제3)조와 기호2번 전현철(아간법3), 김민철(수학교육3)조 등 2개조가 등록했다.

이번 선거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아간투표-23일 오후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투표-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대·불대(A212), 자연대(B2호로비), 법대·상대(B202), 한의대(휴게실), 의과대(의학과·로비) △1차유세-오는 16일 오후1시 녹야원 △2차유세 오는 22일 오후 1시 녹야원 △아간 투표 유세, 오는 22일 오후6시 전경관(B202) △브로마이드 1회 1개, 출마의 변 전지8매, 플레카드 3개 제작, 정책집 1회 7천부 40페이지 이내,

유인물 2회 7천부 이내, 대자보 전지 7매까지 △선거운동원 30명 이내 교문 및 사거리 선전등이다.

#### 백상콘서트

본교 응원단 '백상'은 오늘(9일) 오후 6시 중앙당에서 제9회 백상콘서트를 가진다.

백상응원단에서 개최하고 통양백주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백상'의 연주, 노래를 선보이고 박정운, 김도균등이 우정 출연한다.

#### 이과대 학생회장사퇴

제11대 이과대 선거문제에 책임을 지고 학생회장 김덕현(통계4)군과 대의원장 최민(물리4)군이 지난 3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사퇴에 대해 김군은 "이번 선거의 선관위 구성의 문제점과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이루지 못하고 개표가 3일이나 이월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학생회장 조호형(화4)군이 권한대행직을 맡기로 했다.



◇교육학과 학생회(회장=이정재·3)는 하루주점을 통해 '남은 수익금 50만원'을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에 기증했다. 사진은 지난8일 본부장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모습. (취재부)

### 전국체전 금·은·동1 레슬링·농구 등

제75회 전국체전에서 재학생들이 메달을 따내 교위 선양을 했다.

레슬링 그레이프코트 52kg에서 이영성(경영3)군이 금메달을 따고 레슬링 자유형 52kg에서 이재욱(경영2)군 62kg에서 이영민(경영1)군이 각각 은메달 하나씩을 따냈다.

한편 본교 농구팀이 대학부 농구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 파라글라이딩대회 우승 동아리 '바람소리'(회장=박병호)

기계 3)는 지난 5.6일 양일간 열린 한국 파라글라이딩 대학생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 및 개인전 1, 2위를 차지했다.

대학생 활공연맹에서 주최하고 전북 전주경자산에서 열린 대회에서 박병호(기계3)·이종학(전자2)·정석우(산업1)·노성택(산업1)군등이 단체전에 출전, 우승하였고 개인전에서는 박병호(기계3)군이 1위, 정석우(산업1)군이 2위를 차지했다.

### 학풍쇄신위원회 구성예정 교육부분 학내의견수렴 위해

학내 학풍쇄신을 위한 방안으로 교수, 직원, 학생대표로 구성된 학풍쇄신위원회(가칭)가 꾸러질 예정이다.

교육시설확충 등에 관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으로 실현화시킬 목적이라 이 연구회는 다음주 중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 '94전국노동자대회 오는 13일 경희대서 열려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94 전국노동자대회'가 오는 13일 경희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산별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 건설 준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또 이날 '전대열의추모대회'도 함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노조대표자회의가 중심인 노동운동 진영은 민주노총 건설 투쟁과 노동법 개정투쟁 및 사회개혁투쟁을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설정, 노동자대회를 위한 사업을 벌여나고 있다.

학생운동진영의 '한총련 개혁모임' 진보를 향한 연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3일까지를 노동자 연대 주간

으로 선정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본교에서는 지난 4일 노동자대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가 도서관 앞에서 있었다.

#### 동연선거마무리

제11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선거에서 단독후보인 김용욱(화공3·현대과학연구회)·김향수(철2·인문문화연구회)조가 당선됐다.

총유권자 1백70명중 1백35명이 투표해 79.4%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1백17표를 얻어 86.7%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 회·전·무·대

평화는 언제?

○...공대가 공간문제에 약간의 진통을 겪고 있다고. E101공간을 공사전에 쓰던 소모임들과 공간재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측과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항상 공간문제에 조용한 날이 없는 본교에 언제 평화가 올지 학생들은 안타까와 하고 있다는데.

이런 광경을 보며 회전무대자 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비둘기가 부업구나"

일석이조

○...총학선거에 즈음하여 동연에는 선거에 동참은 못하고 일석이조의 이익(?)을 얻으려는 무리가 있다는데.

다름아닌 학생의 기본무중의 하나인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 정당한 권리인 선거권을 박탈당하고도 억울함을 모르고 있다.

그중 한 학우 말 "투표하는 것도 귀찮은데 투표안해도 되고 학생회비도 안내서 좋고, 이계바로 일석이조조"

Rest(?) Room

○...'둘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 화장실'

용무시 불안해 둘이 함께 들어가야 안전한 곳이 있다는데. 일아본즉, 화장실관 2층 여자 화장실이 문은 잘 닫히지도 않고, 게다가 문고리까지 없어 용무시 한명은 문안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한 여학우 한마디 "Rest! Room에서 어디 불편함을 느껴서야 되겠습니까?"

작은 실천

○...어떤 사람이 무심코 한 일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있어.

각 건물 구석에 있는 쓰레기소집장 입구에 학생들이 별생각없이 주차해 환경미화원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특히 하루에 4백씩 쓰레기를 쓰레기소집장에 쓰레기기에 옮겨실물된 더욱 더 고생이 심하다는데.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본교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서로를 위한 작은 실천부터 하나씩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 '95年度 大卒新人 社員募集

## 맡은자리의 주인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 1. 모집부부-인원 및 응시자격

직종	모집부부	인원	응시자격
관리 영업	경영학·경제학·회계학·무역학 법학·영역영문·중어중문학 영어영문학·서사문학	200명	1. 196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4년제 정규대학 재학중이거나 졸업자로서 1995년 2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기취득자 3.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해외여행에 결장사유가 없는 자 5.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 출신자 유대 (영문제한 없음) 6. 환경관리기사 및 산업·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유대
연구 영업	화학·화학공학·고분자공학 공업화학·기계공학·정밀기계공학 기계설계학·전기공학·전자공학 계측공학·토목공학·건축공학 요양공학·무기재료공학		
전산	전자계산학·통계학·수학		

#### 2. 전형방법 및 일정

- 가 1차: 서류전형(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 나 2차: 필기시험(1차 합격자에 한함)
  - 일시: 1994년 12월 4일(일) 09:00
  - 장소: 현대고등학교(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하차)
  - 과목: 영어, 직무능력 및 적성
- 다 3차: 면접 및 신체검사

#### 3. 제출서류

- 가. 입사지원서(당사소정양식).....1통
- 나.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대학원 출신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1통
- 다. 자격,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각 1통
- 라. 국가보훈처 취업 보호대상자 증명서(보훈대상자에 한함).....1통

####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1994년 11월 9일(수)~11월 17일(목) 09:00 - 17:00  
(단, 토요일은 12:00까지, 일요일은 제외)

#### 나. 교부처

지역	교부처	전화번호
서울	금강 고려인력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3450-5130-4, 5616-9
부산	부산영업소: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69-1	512-3211-5
대구	대구영업소: 대구시 중구 태평로 3가 214-25	252-4321, 0227
울산	울산공정: 경남 울산시 중구 영복동 777	80-1717
전주	전주영업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산동 660-52	74-3007, 78-1877
광주	광주영업소: 광주시 광산구 유산동 1596-2	943-8212, 942-7411
창주	창주영업소: 충북 청주시 수동 447-1	52-2021-3
대전	대전영업소: 충남 대전시 동구 안동 17-1	284-4934, 283-6927
원주	원주영업소: 강원도 원주시 유산동 96-2	44-6821, 43-5868

#### 다. 접수처: 금강·고려 인력관리위원회

우편번호: 137-703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금강·고려화학 B/D  
(서울시 서초구 제일생명 뒤 -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전화: 3450-5130-4, 3450-5616-9, 3450-5512-3

#### 5. 기타

- 가.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오후 5시만 도착분에 한함
- 나.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 다. 현역복무중인자는 94년 12월말 이전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바람

## 금강·고려 인력관리위원회

▲출사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 연영과 '십이야' 졸업공연 연습실을 찾아 그간의 총역량 집중으로 성숙된 연극기대

‘남자들은 입으로만 맹세를 잘하죠. 맹세는 거창하게 하면서도 진심이 없는 것이 남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잡간만 바이올러! 너무 감정이 들어간거 같은데, 자제하고 좀더 자연스럽게...’

본교 연극영화과 졸업공연 연습이 한창인 소극장에는 몇몇씩 뿔이되는 배우들의 대사, 음향, 조명, 감독, 막바지 준비를 보냈다. 떠나려는 김밥이머리, 파자, 빈출로수등 배우들이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올해로 32회를 맞는 이번 졸업공연은 세익스피어의 작품 ‘십이야(十二夜)’로 전반기(연4)군이 연출을 맡았다. 안민수(연극영화과) 지도교수는 “좋은 기술을 요하는 세익스피어의 ‘십이야’를 택한 것엔 의의가 있고 그동안 노력한 연습의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여름방학부터 연습을 시작했다. 이듬해의 하루 일과는 발레, 조깅, 발성연습 등 몸풀기로 시작하여 밤12시까지 계속됐다. “연습기간이 길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말한



연영과는 졸업공연 ‘십이야’를 오는 13일까지 소극장에서 상연한다.

는 올리비아의 송유숙(연영4)은 “연극이 끝나면 가장 먼저 여행을 가고싶다”고 귀띔해준다.

세익스피어는 인생과 인간을 보는 그만의 예리함, 별로 종교념세가 나지 않는 시민적감정을 지녔지만 무엇보다 뛰어난 소넷트에 나타난다는 시인으로서의 문재는 말의 천재로도 표현 된다. 대사 하나하나가 모두 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익스피어의 3대희극의 하나로 꼽히는 ‘십이야’는 일리리아의 한도시와 그 부근의 해안을 무대로 바닷가에 표류한 쌍둥이 남매에 얽힌 사랑을 이야기한다. 남장

것으로 관객의 상상에 따라 상자는 의자로 때론 탁자로 둔갑하며 무대 역시 해안수도 정원이 수도 있다”고 연출자는 설명한다. “통일성이 약한 의상에도 관객은 역시 금방 익숙해 질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번 연극의 특징은 무대앞뿐 아니라 측면에도 관객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든 브리킹이라고 한다. 때론 등을 보이고 네곳에서 등장하기도 하지만 역시 길을 따라 움직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가장처음 시작해 늦게 일이 끝난다는 기획을 맡은 권정주, 형유서군은 스폰서와 정작 자신들은 공연을 보지 못했지만 배우들이 끝까지 함께 했으면 한다고. “배우, 스태프 식사행기는 일반 남았다”고 말하는 이들은 진행하느라 수고하는 후배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는다.

졸업공연은 그간의 총역량이 집약되는 것으로 우선 작품자체가 크다. 졸업을 앞둔 이들의 ‘착잡한’ 아쉬움이 극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건지도 모른다.

한 극작품의 모든 관객은 그가 그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그것의 비평가가 된다고 한다. 가을의 마지막 길목에서 세익스피어를 만나는 기쁨과 동시에 감성과 비평의 시간을 가져보아야 할까!  
(김소영기자)

### 본교 문화예술대학원 설치의 의의 개방화시대 맞아 대학의 특성·경쟁력 살릴 기회 불교문화 보고 개발... 창조적 기능으로 활용해야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동국대학교에 문화예술대학원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개방화시대를 맞아 대학이 동국대학교의 특성과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왜냐하면, 동국대학교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주류를 이끌어 왔던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대학으로서 문화예술의 보고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문화예술계는 많은 불무림을 치고 있다. 그것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되는 주제와 그 표현 기법이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기에 새로운 주제와 기법을 찾으려는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삼은 동국대학교는 문화예술의 주제가 되고 바탕이 될 수 있는 8만년전 불교라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닌 무궁무진한 보고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 동국대학교는 이들 보고를 개발하여 문화예술의 창조적 기능으로 활용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예술대학원은 앞으로 이 같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동국대학교의 위상을 말할것도 없고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니 국민과 더불어 커다란 기대감을 갖게 된다.

불교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두 가지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그 하나는 불교가 우리 문화예술의 전통적 계승 발전에 기여하였

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조성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여기 후자는 지난 날의 문화양상을 그대로 전승하는 것만이 전통의 계승이란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견해라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인식하고 있는 전통의 계승이란 지난 날의 문화양상을 그대로 전승하는 것만이 전통의 계승으로 일찍부터 인식하여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승불교의 모든 경전들이 불설임을 주장하게 된 대승불교가 원시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대승불교는 여러 방면에서 원시불교나 부파불교와는 다른 점이 많다. 즉 신앙의 대상이 다르고 신앙의 형태도 다르다. 따라서 대승불교와 그 문화는 원래 원시불교와는 다른 문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승불교문화가 원시불교문화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서 불교가 지난 전통에 대한 인식은 양식이나 형식의 전승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식에 관계된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불교의 오늘에 이르러까지 많은 문화유산이 축적되면서 그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발전을 향해 발돋움하여 왔는데 불교문화의 전통 문화로서의 의의가 높이 평가된다. 즉 불교는 우리 문화의 뿌리를 유지하여 왔다고 생각할 때이다.

적 기능과 활용적 기능이 있다. 예컨대 고려시대까지의 불교문화가 활용적 기능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한다면 조선시대의 불교문화는 잠재적 기능을 지니었다고 하겠는데 이는 서양문화의 수용 혹은 일제의 침략이라는 강한 자극을 받으면서 다시 활용적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한운운의 ‘조선불교유신론’, 권상노의 ‘불교개혁론’ 등이 대두되게 되었다는 것이 모두 그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불교는 다시 침체를 맞으면서 전통에 대한 잠재적 기능을 다하여 오다가 다시 활용적 기능을 다할 시기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은 때에 동국대학교에 신설되는 문화예술대학원은 불교가 지닌 이상과 같은 원형을 발휘하여 국제화시대를 맞는 한국 문화예술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개발함으로써 커다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문화의 뿌리를 지니는 불교문화의 전통성 가운데에는 문화, 연극, 미술, 음악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무진장의 보고들이 있다. 이를 개발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는 동국대학교의 오늘에 이르러까지 많은 문화유산을 축적하면서 그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발전을 향해 발돋움하여 왔는데 불교문화의 전통 문화로서의 의의가 높이 평가된다. 즉 불교는 우리 문화의 뿌리를 유지하여 왔다고 생각할 때이다.

홍운식 (사법대 역교과 교수)

### 영화의 패러독스 음식영화 인생의 희노애락 ‘음식’에 비유

잃어버린 모든 요소에 대한 대체를 이며 환상이고 유혹으로 제시된다. 개봉되지 않았던 영화가운데에는 영구영화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녀의 정부를 예로 들 수 있다. 한 무리의 폭도들이 음식점을 점유했다. 계절스럽게 먹여치우는 일과 폭력을 일삼는다. 무명의 아내는 이상적인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도둑에 대한 반란을 꾀한다. 도둑은 그녀의 정부를 죽이게 되는데 아내는 음식점의 요리사의 도움으로 복수의 칼을 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도둑의 먹는다는 행위는 제국주의의 착취를 말한다. 아내의 반란은 제국주의의 모순으로 인한 내부 붕괴를 말하며 요리사는 그것을 돕는 조력자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레만코 영화 ‘사베트의 잔치’ 역시 음식영화의 대표작으로 꼽을 만하다. 한 프랑스 여자 요리사가 덴마크의 귀족잔치에 발탁되어 간다. 이 영화의 전파점은 그 잔치를 준비하는 요리사의 세심하고 치밀한 작업으로 일관되어 있다. 마치 요리강습 시간처럼 요리의 전과정을 요망하게 보여준다. 간간히 그녀의 과거 사랑의 추억이 곁들여지긴 하지만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마침내 요리가 끝나고 귀족들은 떠돌아다니는 잔치를 즐긴다. 우리는 화면에서 부엌 뒤쪽에 초라하고 고독하며 허탈하게 앉아 있는 여자 요리사의 모습을 집중하게 된다.

이 모습은 귀족들의 잔치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면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주제 의식을 느끼게 만든다. 부분적으로 음식에 대한 비유를 담은 경우는 베트남 영화 ‘그린 파와 향기’에 표현된 파와 요리에 대한 은유이다. 이 영화는 여자 주인공을 둘러싼 모든 자연물이 생명



음식녀

의 신비한 이미지로 제시된다. 그린 파와의 알갱이를 뒤적거리며 그녀는 손수와 아름다운 생명에 대한 감회를 느끼게 된다.

‘음식녀’는 이런 음식영화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골고루 공양하고 있다. 요리사 아버지와 세 딸의 인생은 음식을 통해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 음식상 앞에서 쓰러진 이별을 하게 된다. 이 영화는 인생의 희노애락, 만남과 이별의 의식을 음식상 앞에서 전부 처리하고 있다.

우리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마주 대하는 음식과 음식상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인생의 모든 꿈과 소망과 회한을 담은 대단히 신성한 대상일 것이다.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그린파와의 향기

이 세상의 모든 사물 혹은 현상은 그 자체 하나의 시작은 유혹을 갖는다. 그 가운데 음식에 대한 유혹은 최근 영화 속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음식만들기, 식욕, 먹여치우는 현상, 음식상에서의 화려한 분위기는 많은 유혹적 유혹성을 그 영화들이 갖고 있어 흥미롭다. 소위 ‘음식영화’라는 것은 단순한 소재를 넘어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를 해석하는 단서가 되는 것이다.

우리 대만의 이안 감독이 만든 ‘음식녀’를 통해 음식영화의 단적인 형태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이 영화 이전에도 많은 음식영화의 계보가 그려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영화 가운데에는 ‘달콤 쌉쌀한 초콜렛’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음식은 멕시코 가족이 갈구하는 혹은

**최경인**  
(58)

농민들은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극기훈련이요!

어? 경쟁력이 없네?

시업소득  
생활비  
주요수입  
주요수입  
주요수입  
주요수입  
주요수입

**1995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행정대학원 (야간) ☎ 260-3101 · 3**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연구과정  
가. 행정학과: 일반행정·공공정책·관광행정·인문정보·환경행정  
나. 안보행정학과: 외교국방·병위산업·군사전략·안보정책  
다. 행정경제학과: 사회복지·소방행정·고도행정·사범행정·사정비  
라.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복지행정·복지조사·동일정책  
마. 지방자치학과: 지방행정·지방의회·지방재정·지역개발
- 원서교부 및 접수: 1994년 11월 10일(목)~11월 22일(화)
- 전형일시: 1994년 11월 26일(토) 동국대 14:00
- 전형방법: 석사과정: 서류전형·면접  
나. 연구과정: 서류전형·면접
- 특 전: 석사과정 사회복지 전공자는 1급 복직사 자격증 취득

**행정관리사과정 (야간) ☎ 260-3106 · 7**

- 지원자격: 가. 정부 각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나, 각 군의 영관급이상 장교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라. 사기업체의 임원 마. 사회 지도급인사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원서교부 및 접수: 1994년 11월 10일(목)~12월 2일(금)
- 전형일시 및 방법: 1994년 12월 10일(토) 10:00, 서류전형 및 면접

**경영대학원 (야간) ☎ 260-3106 · 7**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 및 연구과정  
가. 경제학과: 산업경제·금융 및 재정  
나. 무역학과: 무역이론·무역실무·무역보험 및 해운·무역경영  
다. 경영학과: 조직 및 인사관리·생산관리 및 계약경영·마케팅·재무관리·국제경영  
라. 회계학과: 관리회계·재무회계·세무회계  
마. 경영정보학과: 정보시스템·경영정보시스템  
나. 노사관계학과: 노사관리  
사. 부동산학과: 부동산
- 원서교부 및 접수: 1994년 11월 16일(수)~11월 25일(금)
- 전형일시 및 방법: 1994년 12월 3일(토) 14:00  
노출(경영학원론) 면접
- 특 전: 조계종제직승려·공무원·교직원·공인회계사등에게 장학금 지급

**경영관리사과정 (야간) ☎ 260-3106 · 7**

- 지원자격: 가. 회사, 사회단체의 대표 및 간부 나. 노조간부 다. 군 고위장교 다. 정부 각 기관 5급이상 공무원 마.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신입기술대학원 (야간) ☎ 260-3602 · 3**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 및 연구과정  
가. 산업과학: 전자, 전기공학·컴퓨터공학·기계공학·건설공학·화학공학·재료공학·식품공학·산업공학·농림자원
- 원서교부 및 접수: 1994년 11월 16일(수)~11월 30일(수)
- 전형일시 및 방법: 1994년 12월 3일(토) 14:00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가. 공무원·군인·교직원·국가산업 및 유한한 기업체 중견간부 등에게 각종 장학금 지급 나.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중견간부나 장기 실무경력자는 우대전형

**산업관리사과정 (야간) ☎ 260-3109 · 10**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 및 연구과정  
가. 교육학과: 교육행정·교육경영·상담교육·유아교육  
나. 교과교육학과: 국어·지리·역사·수학·영어·철학·미술·한문·체육·영어·물리·화학·생물·가정·진로·직업·교육·중국어교육·전공(신설)
- 원서교부 및 접수: 1994년 11월 14일(월)~11월 25일(금)
- 전형일시 및 방법: 1994년 12월 3일(토) 14:00  
서류전형·면접 및 전공수업
- 특 전: 교원자격의 교사·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경력력을 감안하여 전형비 가산점 부여

**정보산업대학원 (야간) ☎ 260-3113 · 5**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 및 연구과정  
가. 정보관리학과: 정보관리 나. 전자계산학과: 전자계산  
다.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출판잡지 라.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  
마. 정보통신학과: 정보통신
- 원서교부 및 접수: 1994년 11월 21일(월)~12월 2일(금)
- 전형일시 및 방법: 1994년 12월 10일(토) 14:00
- 전형방법: 석사과정은 전공필기시험 및 면접(구술시험)  
연구과정은 서류전형 및 면접  
가. 정보관리·전자계산학과: 컴퓨터개론  
나. 신문방송·광고홍보학과: 논문고사  
다. 정보통신학과: 정보통신개론
- 특 전: 공무원·연인인·교직원·군인에겐 각종 장학금 지급하며 해당분야 경력자는 우대함

**정보산업관리사과정 ☎ 260-3113 · 5**

- 지원자격: 언론계·기업체·국가기관·군인·사회단체의 중견관리자
-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연구과정과 동일

**신설문화예술대학원 (신설 야간) ☎ 260-3605 · 7**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가. 문화정책학과: 문화정책  
나. 연극영화학과: 연극·영화영상  
다. 불교문화학과: 불교미술·불교음악·문화재
- 원서교부 및 접수: 1994년 11월 28일(월)~12월 9일(금)
- 전형일시: 1994년 12월 16일(토)
- 기타 전형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문의바람

**문화예술관리사과정 ☎ 260-3605 · 7**

- 지원자격: 중견직·연예인·불교예술인 및 문화예술기관 간부
-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연구과정과 동일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

**동국대학교**